

[뉴스] 기아차 CEO 인베스트 데이 '플랜 S' 공개 02



Economy

코스피	2238.88 (+9.62)	코스닥	678.71 (-0.51)
금리 (미국 3년)	1.39 (-0.03)	환율 (원/달러)	1156.10 (+0.10) (14일)

대학 등 비영리 법인 감사공영제 개혁 완성

회계감사 시각변동

(下) 회계개혁 마지막 단추

올해 회계업계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이하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 회계 개혁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주기적 지정제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전 세계 회계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주기적 지정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공영제'를 통해 회계 개혁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고 있다.

1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상정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 1월 1일부터는 외부감사 적용대상 공익법인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은 자산 100억원 이상이 기준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기부금을 20억원 이상 모았거나, 기부금 포함 총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공익법인 감사의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한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이 외부감사인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



이민우 영남대학교 교수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감사품질 개선효과' 논문 속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사 계약 후 6년까지는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품질이 개선되지만, 6년 이후로는 감사대상기업과 유착 관계가 발생하면서 감사품질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U자형'이 나타났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감사품질 효과

아울러 공공기관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의 감사공영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영국은 90% 이상의 지자체에서 PSAA(국가에 의해 지정된 공공감사협약기구)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4000여 개의 공공기관 회계감사에 대해 2003년부터 3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는 지정제를 도입했다.



아파트·공공기관 등 감사공영제 필요 영국·뉴질랜드 등도 감사인 지정 도입

전 세계가 지켜보는 韓 회계개혁 주기적 지정제로 투명성 증명해야

을 4년간 자율 선임하면 그다음 2년간은 기획재정부 장관(또는 국세청장 위탁)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 '감사공영제'가 회계 개혁의 완성

이처럼 주기적 지정제의 대상 범위는 차츰 넓어질 전망이다. 최종경 한공회 회장(사진)은 기부금 단체를 비롯해 아파트, 사립대학 등 비영리 부문에 대한 감사공영제 도입을 '회계개혁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

감사공영제는 정부(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회계전문 공적기관이 외부감사인을 단독 또는 복수 추천하는 방식이다.

우선 아파트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슈다. 한공회가 지난 2017년 발행된 9000개의 아파트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849건에 양적 개선권고 있었고 명시된 금액은 1518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아파트 감사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가구당 1만원을 아낄 수 있다"면서 "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감사보수는 3500원으로 비용보다 효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 세계가 지켜보는 '주기적 지정제'

주기적 지정제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주기적 지정제로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크다.

최 회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회계 개혁은 블룸버그에서도 보도하고, 글로벌 빅4회계법인 대표들 모두 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과 감사인 간 유착에 따른 회계 투명성 저하는 전 세계가 고민하는 문제다.

자율수입제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미국에서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 기업들의 평균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계속감사기간과 관련한 의무공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지난 2006년 감사인 강제 교체제도가 시행된 바 있지만 감사업무의 효율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됐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강력한 대책으로 집값 원상회복”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부동산 안정화’ 정부의지 확고 남북 간 대화 비판할 단계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울 강남권 등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곳은 가격상승률 둔화를 넘어, 원상회복 수준까지 하락시키는 강력대책을 꺼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검찰을 비롯해 청와대·국정원·국세청·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경제분야 부동산 문제 관련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안정화의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인상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상승된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도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장기 저금리 상태가 지속돼 많은 투자자금이 투기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우리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이 많고 우리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현주소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음가짐에

따라 수사 관행 및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가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검찰개혁 현주소를 이렇게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남북간 대화를 나눌 수 없지만 비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의 약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음과 동시에 남북미 대화를 비판적으로 보지 않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승준 기자 dn1114@

AI 병실·VR 의료협진... 5G 스마트병원 눈앞

지금은 5G 시대

KT-삼성서울병원 5G 의료서비스 공동 개발

의료 서비스에도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 적용된다. 5G 싱크캠으로 집도의 고화질 수술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교육이 가능해지고, 수술실 내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비품과 폐기물을 나른다. 향후에는 가상현실(VR)로 의료협진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AI) 스마트 병실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KT는 삼성서울병원과 지난 13일 일원동 삼성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G 스마트 혁신 병원' 구축을 위한 5G 의료서비스를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T는 삼성서울병원에 '기업전용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술실과 양성자 치료실 등에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시범 운영했다.



삼성서울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5G 싱크캠을 장착하고 수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KT

◆병원 내 어디서나 디지털 병리 진단

표준 방사선 치료보다 뛰어나다고 알려진 항암 치료법인 양성자 치료는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그간 교수 사무실과 양성자 센터 간 1km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양성자 치료 정보는 장당 4기가바이트(GB)이 고용량 데이터다.

양사가 구축한 5G 디지털 병리 분석은 5G를 활용해 이러한 공간적 한계를 극복했다. 기존 병리 진단은 수술 중 때어난 조직을 병리와 교수가 분석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수술실 옆 담당 병리 교수가 분석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담당 교수들이 도보로 20분 거리를 이동해 다양한 병리와 교수진이 함께 분석하기 어려웠다.

5G 디지털 병리 진단은 초고속, 초저지연 특성을 가진 5G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 내 병리와 사무실서도 병리 데이터 조회가 가능해졌다.

표훈렬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진료과장은 “하루에 500명의 환자가 찾는데 담당 의사는 10여명 정도이고 장비는 세 군데로 흩어져있어 담당 의사가 모든 환자를 확인하는데 무리가 있었다”며 “이 시스템 구축으로 확장성도 용이해졌고 실시간 치료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김나인 기자 silkni@

은행, DLF사태 적극소명

우리·하나금융에 '중징계 통보' 금감원, 내일 DLF 제재심의위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오는 16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앞서 DLF 판매사의 최고경영자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가 통보된 만큼 은행들은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DLF 제재와 관련해 일단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대출 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끝난 후 "16일에 제재심이 진행될 텐데 그쪽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 잘 경청하고, 결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이 아닌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제재심의 자문을 받긴 하지만 금감원장이 전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당연직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풀 가운데서 선정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 회장도 참석했지만 윤 원장과 새해 덕담 정도만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다. 내부통제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 측은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임기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경우 이미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연임을 결정했고, 주주총회 일정 등을 따지면 제재심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가능한 징계수위를 낮춰놓는 것이 좋다.

오는 16일 제재심으로 결론을 낼지, 아니면 추가 논의가 필요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소득하위 40% 노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38만원 이하인 노인은 소득 하위 노인 4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받고 발령 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소득 하위 40%

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 이른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조정할 게 골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는데,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악화하는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

29조 투입, 전기차 리딩브랜드로 '충전·정비' 모빌리티 허브 구축

기아차 'CEO 인베스트 데이'

"2025년 영업이익률 목표 6% 전기차 점유율 6.6%로 높일 것 플랜S로 선제적·미래사업 전환"

기아자동차가 현대차에 이어 최초로 최고경영자가 주재하는 'CEO 인베스트 데이'를 개최하고 미래 자동차산업 대응을 위한 중장기 미래 전략 '플랜 S'를 공개했다.

'플랜 S'는 기존 내연기관 위주에서 선제적인 전기차(EV) 사업 체제로의 전환과 동시에,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혁신 및 수익성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아차는 6년간 29조원을 투자해 2025년 영업이익률 6%, 자기자본이익률 10.6%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해 점유율을 6.6%로 높이고 모빌리티 솔루션에서도 경쟁력을 갖춘다.

기아차는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박한우 사장 주재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CEO 인베스트데이에서 양대 미래 사업 '전기차와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과감한 전환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한우 사장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아차가 미래 고객 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변화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랜 S는 전기차 및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미래 사업 전환 계획"이라며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혁신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2021년에 첫 전기차 전용 모델을 내놓고 2025년엔 전차급에 걸쳐서 전기차 11종을 갖추고, 친환경차 판매 비중 25%를 달성할 방침이다. 2026년에는 중국 외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50만대를 포함해 친환경차 100만대를 판매한다.

기아차의 전용 전기차 모델은 전기

기아차 '플랜 S' 2대 미래 사업 주요 내용

전기차 선제적 전환

- 전기차 대중화 선도
 - 2021년 전기차 전용 모델 출시
 - 2025년 전기차 11종 풀라인업 구축, 글로벌 점유율 6.6%
 - 2026년 전기차 50만대, 친환경차 100만대 판매
 - 전용 전기차-파생 전기차 동시 운영, 가격-시장 차별화
 - 선진시장, 전기차 주력시장으로 육성, 2025년 판매 비중 20%
 - 신용시장, 전기차 선별 투입-내연기관 판매 확대
 - 전기차 아키텍처(차량 기본 골격) 개발 체계 도입
 - 전기차 판매 방식 혁신...맞춤형 구동 모델, 배터리 렌탈-리스 등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 전기차-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전개 및 PBV 사업 확대
 - 환경 규제 강화, 전기차 보급 확대 도시, '모빌리티 허브' 구축
 -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 모빌리티 허브 통해 물류, 차량 정비 등 신규 수익 모델 발굴
 - 장기적으로 전기차-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 기업 고객 대상 PBV 시장 선도
 - ...타깃 고객 전용 PBV 및 맞춤형 PBV 등 신규 개발, 공급



자료/기아차

연암뉴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14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CEO 인베스트 데이'를 개최하고 중장기 미래 전략 '플랜 S'와 '2025년 재무 및 투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되고, 승용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경계를 허무는 크로스오버 디자인, 미래지향적 사용자 경험,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 20분 이내 초고속 충전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집약된다.

전기차 라인업은 소비자들인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고성능의 '전용 전기차'와 보급형의 '파생 전기차'로 운영한다. 한국,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은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 신형시장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감안해 투입한다.

기아차는 혁신적인 '전기차 아키텍처(차량 기본 골격)' 개발 체계를 도입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객 요구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차종을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전기차 판매와 관련해서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구동 모델,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렌탈·리스, 중고 배터리 사업 등도 검토 중이다.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 기아차는 해외 대도시에서 지역 사업자 등과 함께 전기차 충전소, 차량 정비 센터, 편

의시설 등이 갖춰진 '모빌리티 허브(Hub)'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모빌리티 허브는 환경 규제 도시 진입이 불가한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의 환승하는 거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로보택시, 수요응답형 로보셔틀 등도 운영한다.

기아차는 또 운송, 물류, 유통 등 기업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 신규 기업 고객군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업 고객이 현재 세계 산업 수요의 약 5%에서 2030년에 25%로 늘어날 것인 전망이 배경이다.

기아차는 니로EV, 쏘울EV 등 기존 차량에 별도 트림을 운영하는 과도기를 거쳐, 차량 공유 서비스 전용차, 상하차용이한 저상물류차, 냉장/냉각 시스템이 적용된 신선식품 배송차 등 타깃 고객 전용 PBV를 개발,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하면 초소형 무인 배송차, 로보택시 등 통합 모듈 방식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PBV로 사업을 확대한다.

특정 용도의 PBV는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외부 협업에 적극 나서고 내부에도 전담 개발조직과 생산 체계를 갖춘 예정이다.

기아차는 내연기관 사업 수익성을 개선해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영업이익률을 지난해 3.4%(3분기까지), 2022년 5%에서 2025년 6%로 올릴 계획이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세계 상위 수준인 10.6%로 높인다. 이를 위해 기아차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SUV 판매 비중을 현재 50%에서 2022년 60%로 끌어올린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INNOBIZ
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 혁신의 새로운 성장

제19차 정기총회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경자년에도 健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이노비즈협회에서는 정관 제4장 제17조에 의거,
「제19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이노비즈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① 일 시 : 2020. 2. 19(수) 16:00

② 장 소 : 임피리얼 펠리시호텔 서울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40 소재)

③ 행사계획

- (16시~17시) 제19차 정기총회
- (17시~18시) 2020년도 중점지원사업 설명회
- (18시~20시) 만찬 및 네트워크

2020년 1월 15일

☎ [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202호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화 031-628-9600)

기업 4곳 중 1곳, "올 구조조정 계획"

이유 46.2% '인건비 절감 위해서' 전체인원 대비 14%수준 구조조정

연초부터 항공업계 구조조정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기업 4곳 중 1곳은 올해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사람이 기업 384개사를 대상으로 '인력 구조조정 계획 여부'를 조사한 결과 23.7%는 '올해 구조조정 계획

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중 31.9%는 지난해에도 이미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이유(복수응답)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4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예견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책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택하고 있는 것.

구조조정 1순위 직원 유형 TOP5



올해 구조조정 인력은 전체 인원 대비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hys@

삼성 5G 날개 달았다... 망 설계·구축전문 美기업 인수



삼성전자가 미국 5G·4G LTE 망설계·최적화 전문기업 텔레월드 솔루션즈와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 이동통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한편 전략적 투자를 통한 글로벌 이동통신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02년 설립된 텔레월드 솔루션즈는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업자, 케이블 방송사 등에 망설계·최적화·필드테스트 등 전문인력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텔레월드 솔루션즈는 대량의 필드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검증분석 자동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실내외 기지국 최적 위치 선정, 무선신호 간섭원 추출, 기지국 셀 설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대비 50%에서 최대 90%까지 절감해 준다.

삼성전자는 인수 완료 이후에도 텔레월드 솔루션즈 현재 경영진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국 이동통신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美 텔레월드 솔루션즈와 인수계약 체결 북미 점유율 확대 등 글로벌 공략 박차

인수 후에도 現 경영진이 사업 운영키로 유연한 시장 대응, 시너지 극대화 기대감

삼성전자가 미국 5G·4G LTE 망설계·최적화 전문기업 텔레월드 솔루션즈와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전 세계를 무대로 5G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토이미지

5G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600~800MHz 저대역, 2.5~4.9GHz 중대역, 24~39GHz 초고주파수대역 등 이동통신에 활용되는 주파수와 기지국이 다양해지고, 망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망설계·최적화 기술이 5G 커버리지 확보의

핵심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전경훈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선도시장인 미국에서 기술과 사업 역량을 인정받아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에 5G·4G 통신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며 "세계 5G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텔레월드 솔루션즈의 전문인력과 차별화된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사 시너지를 극대화해, 2020년 북미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

텔레월드 솔루션즈 설빈 제라미 CEO는 "5G 상용화가 확대되면서 통신 시스템의 성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망설계, 구축, 최적화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북미 이동통신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일원이 돼 매우 기쁘며, 텔레월드 솔루션의 전문인력과 차별화된 서비스 노하우로 삼성전자가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자율주행로봇이 비품 전달하고 수술영상 실시간 공유

>> 1면 '시병실·VR 의료 협진'서 계속

싱크캠으로 고품질 영상 중계 로봇으로 비품 운송해 감염 ↓

◆교수님 뒤통수만 봤는데...

교육장의 수술 지도도 원활해졌다. 기존 의과대학 학생과 수습 의료진의 수술 현장 교육 진행 시 수술 집도의와 지원 간호진, 수술 장비 등이 복잡하게 위치한 공간 문제로 인해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점이 교수진들의 고민이었다.

KT는 '5G 수술 지도'를 삼성서울병원과 개발해 한적한 수술실에서 벗어나 많은 수습 의료진이 모인 강의실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5G를 이용한 싱크캠으로 수술 중인 교수 시점의 영상과 음성을 고품질로 실시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있었던 5G 스마트병원 MOU 시연회에서 VR과 AR을 통한 수술 교육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KT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실제 5G 네트워크를 통해 수술실의 상황을 중계하는 장면을 시연하기도 했다. 수술실 안 전경을 보여주는 고정캠과 수술 집도의가 싱크캠으로 환자를 수술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송됐다.

최준호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는 "130년이 지나도 교수님 뒤통수만 보는

수술 참관이 이어져왔다"며 "5G를 이용한 외과 혁신으로 보편적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G 자율주행 운반 로봇

수술실 5G 자율주행 운반 로봇은 수술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개발됐다. 수술 시에는 감염물이나 의료폐기물 등이 반복적으로 대량 발생하게 된다. 이를 5G 자율

주행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고 비품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한 의료 지원서비스다.

특히 감염된 물품을 사람이 옮기다 침습적인 접촉 등으로 발생하는 2, 3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부족한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의료 업무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KT는 설명했다.

KT와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5G 혁신 의료서비스 개발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한 환자 케어 서비스 개발과 5G 기반 의료행위 혁신, 병원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5G 서비스 개발 등 올해 5G 스마트 혁신 병원 구축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KT 기업사업부부장인 박윤영 부사장은 "KT 5G를 바탕으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이동성과 의료행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욱 나아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혁신병원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어린이 영어공부 AR로' LGU+, AR교육 서비스

LG유플러스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동화, 자연관찰, 과학 등의 콘텐츠를 3D 증강현실(AR)로 생동감있게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교육애플리케이션(앱) 'U+아이들생생도서관'을 17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U+아이들생생도서관은 'DK', '펍퀸랜덤하우스', '옥스퍼드' 등 전 세계 유명 아동도서 출판업체 24개사와 제휴해 영어도서 110편을 3D AR로 제작, 독점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5세부터 9세 어린이들이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내용에 따른 카테고리별 메뉴 구성을 했다. 이와 함께 알파벳 학습 시작 단계부터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까지 수준에 맞춰 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가 책을 읽다 모르는 영단어가 나와도 앱 내에서 제공하는 사전기능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그림책으로는 자녀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자연관찰, 과학도서를 3D 입체복합으로 즐길 수 있어 어린이 영어학습에 최적화된 서비스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책 속 단어들의 스펠링 순서 맞추기, 주인공 그리기,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메모리 게임 등 도서 내용과 연계된 8종의 게임도 즐길 수 있다.

/김나인 기자

현대건설, 새해부터 낭보... 카타르·싱가포르서 1.5兆 수주

카타르 플라자타워 1.2兆 등

현대건설이 1월에만 중동 및 남아 지역의 카타르와 싱가포르에서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건축 공사를 수주하며 올해 본격적인 해외 수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14일 카타르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발주한 총 약 6093억원 규모의 루사일 플라자 타워 플랫3 공사 낙찰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새해 첫 해외수주 포문을 연 루사일 플라자 타워 플랫4(총 6130억원)에 이은 수주로 두 공사 금액을 합쳐 약 1조 2000억원(미화 10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건축 공사다.

현대건설은 지난 7일 싱가포르 스포츠청이 발주한 2700억원 상당의 풍골 스포츠센터의 시공사로도 선정돼 연초 해외 건축부문에서 총 1조 5000억원의

수주 행진을 이어갔다.

현대건설이 이번에 단독 수주한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플랫3 공사는 지하 5층, 지상 70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과 상가, 주변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후 34개월, 2022년 말 준공이 목표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개최될 루사일 아이코닉 스타디움과 인접해 있다.

싱가포르에서 수주한 풍골 스포츠센

터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현지 업체와 공동 수주했다. 현대건설 지분은 1900억원이다. 현대건설은 4만 818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2만 3617㎡ 규모의 스포츠센터와 야외경기장을 신축하게 된다. 공사 기간은 36개월이며 오는 2023년 1월 준공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선진사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현대건설의 우수한 해외 사업실력 및 수주 네트워크 확장 노력이 연이은 수주 결실로 빛을 발휘해 갔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



해마다 연초가 되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전 세계 수천여 주요 전자·정보기술(IT) 기업들이 모여 첨단 '기술의 향연'을 펼친다. 과거엔 주로 소비자용 전자제품들이 소개돼 '소비자가전쇼(CES)'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전자제품뿐 아니라 IT·통신·모빌리티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메트로신문은 지난 몇년 전부터 현지 취재를 통해 최신 산업 트렌드를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왔다. 올해 역시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 2020년의 전자·IT산업의 키워드가 될 최신 기술 트렌드를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기사로 전달했다. 메트로신문은 라스베이거스 현장에서 CES 2020의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한 기자들과 IT 및 인공지능(AI) 전문 기자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 기사로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방담 형식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5G·AI가 대세... 이통사·車업계 ‘연결’ 화두 삼성 부스 압도적... ‘하늘 길’ 현대車도 두각”

韓 기업 가전부터 로봇 등 전시 AI 빠진 기술 찾아보기 어려워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0'가 진행됐다. 올해로 53년째를 맞이한 CES는 독일의 IFA, 스페인의 MWC 전시회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힌다. 특히 CES는 매년 1월 열려 한 해의 최신 기술을 미리 볼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과거와 달라진 CES 트렌드

윤휘중: 원래 과거에는 CES가 '소비자가전쇼'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가전 제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가전보다는 모빌리티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다 참여했고, 기사들을 보면 세탁기나 냉장고에 대해선 큰 이슈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성운: 직접 가서 느낀 바도 그렇습니다. 삼성·LG전자도 가전을 전시하긴 했지만 인공지능(AI)과 연관 지어 연결성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도 보면 현대차나 도요타의 경우 수소와 관련된 것도 있고, 특히 현대차는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종목표가 자율주행이긴 한데 그렇게 되려면 자동차와 통신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구서윤: 올해는 4500개가 넘는 업체가 참가했는데, AI가 빠진 기술을 찾아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가전과 관련이 없는 기업도 많은데, 이렇다 보니 가전에 한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봐서 좋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CES가 변질되어가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김나인: 올해는 KT를 제외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수장들이 CES에 참석했습니다. 이통사가 CES에 가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5G 상용화로 인한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글로벌 협력 모색



채윤정 AI전문기자
“다각화 추세로 제품 참신 플랫폼 넘어 기업 생존 추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올해 CES 화두 중 하나로 모빌리티 혁신이 꼽혔는데, 모빌리티는 모두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특성의 5G를 토대로 합니다. 5G를 통해 교통과 도로 상황 정보를 실시간 분석, 전송하고 수백만 대의 차량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휘중: 그런 점을 알리는 것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김나인: SK텔레콤은 CES에서 글로벌 전자기업 파이오니아와 함께 만든 차세대 관일 당사 라이더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라이더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추어 사물과의 거리, 다양한 물성을 감지하고 이를 3D 영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로,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합니다. 또, CES는 글로벌 ICT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ICT 트렌드의 장이기 때문에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내는 유플러스는 구글과 협력해 AR 서비스 내봉을 방침이고, SKT는 미국 싱클레어 방송과 미디어 협력해 합작회사 출범기도 했습니다.

채윤정: 다각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추세이고, 참신한 제품들을 더 많이 볼



양성운 기자
“올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미래 모빌리티 방향성 확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빌리티 분야에서 자율주행 AI 기술을 선보인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AI 플랫폼 업체인 솔트룩스는 융합 기술을 위해 전문기업들과 투자협약을 맺고 함께 참여 인피닉스와 자율주행차량 데이터 수집 기술을, 프론티스와 협력을 통해 산업용 VR 및 AR 시스템 등을 선보였습니다.

자율주행 분야 AI 기업인 모라이는 실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수 만가지 상황 재현한 고정밀 시뮬레이션 기술을 선보였고, 에이모는 현장에서 이동하는 물체 자동 인식하는 기술, 자율주행 차량이 영상, 레이더, 라이더 센서 분석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플랫폼만으론 살아남기 어려운 기업들이 머리를 쓴 것이라고 할까요.

◆한국 기업에 쏠린 눈

윤휘중: 한국 업체의 활약도 큰 것 같던데 현장에서 어땠나요?

구서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부스는 우선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부스 크기부터 압도적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가 업체 중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약 1021평 규모였는데, TV, 냉장고 등 기본적인 가전부터 의류관리기, 식음재배기, 로봇 등 수많은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윤휘중: 미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이지만 확실히 한국 업체의 위상이 대단한 것 같네요. 트럼프도 '미국 사람들이 다 한국 TV를 보는데 부자 나라인 한국이 방위비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웃음).

김나인: 중국 업체들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구서윤: 많은 중국 TV 업체도 부스를 꽤 크게 꾸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자신들이 먼저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것이 아닌 타 업체 제품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쳐



김나인 기자
“모빌리티 혁신, 5G 토대로 이통사 CES서 협력 모색”

아쉬웠습니다. 하이센스, TCL, 창흥, 스카이워스가 모두 세로형 TV를 전시했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처음 출시해 인기를 얻은 제품이기도요.

채윤정: 어찌 보면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CES 달군 '라스베이거스 모터쇼?'
구서윤: 자동차 쪽 부스를 둘러본 기자들이 모두 멋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담당 기자로서의 느낌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양성운: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에 많은 비중을 뒀다면 올해는 기업들이 구상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단순히 도로를 달리는 이동수단을 넘어 사람과 이동수단의 교감을 확대하고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고 전기로 구동되며 심지어 지상과 하늘길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더라고요.

김나인: 그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회사는 어디였나요?

양성운: '하늘 길'의 청사진을 제시한 현대자동차와 미래 기술이 집약된 '우븐 시티' 계획을 발표한 도요타입니다. 현대차는 약 202평 규모의 전시 부스를 마련해 전폭 15m, 전장 10.7m의 거대한 PAV(개인용 비행체) S-A1 실물 모형을 전시해 일부 관람객들이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콘셉트 'S-Link'는 주거용 및 의료용 버전으로 모빌리티가 사람이 운전하는 '이동수단'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생활공간'으로 변모했을 때의 모습을 한 눈에 보여줬습니다.

현대차에서 2028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지만 기술과 규제 등의 문제로 단기간에 현실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윤휘중: 도요타는 어떤 제품을 선보였나



구서윤 기자
“가전 한계 넘어 제품군 다양화 CES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요?
양성운: 도요타는 우븐 시티에서 운영될 다목적 자율주행 셔틀 'e-팔레트'와 소형 배송 로봇인 '마이크로 팔레트'를 전시했습니다. e-팔레트는 인원 수송 및 화물배송뿐만 아니라 용도변경이 가능한 이동형 점포나 식당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는 점에서 현대차의 PBV 콘셉트 S-Link와 비슷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는데, 용도와 외양 모두 판박이라는 점에서 미래 모빌리티에의 차별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독일 업체들은 자율주행 콘셉트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벤츠는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아바타'에서 영감을 얻은 비전 AVTR을 전시했는데 자동차가 운전자의 심장 박동과 호흡을 인식해 직관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기존 자율주행차와 차별점을 뒀습니다.

채윤정: IT 업체도 모빌리티 쪽 혁신을 선보였는데요. 구글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볼보 차량 등 2대 전시하고 구글 어시스턴스로 내비게이션 이용 전원을 제어하는 기술을 선보였어요. 아마존은 CES에서 부스도 자동차업체들이 주로 모인 '모빌리티' 쪽에 자리해 자동차업체들과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고요. 특히 알렉사를 탑재한 차량 3대를 전시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뿐만 아니라 람보르기니 우라칸 예보, 리비안의 픽업 트럭에 알렉사 탑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성지시로 음악, 문 여는 기능 등을 선보였으며, 차 안에서 집에 있는 제품을 제어하는 스마트홈 기능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익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가운데)과 다라 코스로사히 우버 CEO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 현대차 전시관 내 실물 크기의 현대 PAV(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S-A1' 앞에서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담 참여=윤휘중 산업부장
채윤정·양성운·김나인·구서윤 기자
정리=구서윤 기자uni2514@metroseoul.co.kr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택 아닌 필수... 혁신 가속화”

보험, 飛上 2020 전략

(3) 교보생명

프로세스, 비즈니스모델 등 고객중심 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한 플랫폼 고객 상황 고려한 맞춤형 포폴 제안

교보생명은 올해 경영방침을 '생존을 넘어 디지털 교보로 가자!'로 정했다. 올해에도 보험업계의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객 가치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4일 교보생명에서 열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20 출발 조회사'에서 "장기불황과 1%대의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보험시장이 갈수록 축소되고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 기업들이 보험시장에 속속 참여해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며 "이제 막연히 성장을 논하기보다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뀌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결국 살아남는 기업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기업"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윤열연 교보생명 사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고객이 디지털을 활용해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접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고객 만족을 창출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기업문화, 커뮤니케이션 등을 고객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 회장은 디지털 교보로 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고객가치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고객 보장자산 확대 ▲고객접점 활동 강화 ▲컨설턴트 조직 순증·역량 강화 ▲자산운용 체질 강화 ▲신뢰받는 고객보호 문화 확산 등을 꼽았다.

◆**고객가치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 가속화**
신 회장은 한 차원 높은 디지털 혁신을 주문했다. 교보생명은 디지털을 활용한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을 넘어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업무 프로세스도 고객 중심으로 효율화할 계획이다.

◆**고객보장자산 확대·고객접점 활동 강화**
신 회장은 고객 보장자산을 늘리고, 고객접점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제안했다.

교보생명은 가족생활보장 상품인 중신보험과 CI(Critical Illness·중대질병)보험을 중심으로 더 많은 고객의 보장자산을 늘리는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고객의 보장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라이프사이클과 재정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보장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생애설계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실천하고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서 질병, 건강관리서비스 등 유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모바일 기반의 활동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스포츠·문화 마케팅 등을 통해 밀레니얼 등 신규 고객도 확보할 계획이다.

◆**컨설턴트 조직 순증·역량 강화**
신 회장은 디지털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그는 신인FP장기양성체계 하에 적성 후보를 많이 발굴하고 선별 도입함으로써 컨설턴트 조직을 순증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컨설턴트 조직이 고객보장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활용·생애설계 역량, 건강관리 상담 역량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은 "디지털 혁신은 디지털 부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全) 임직원이 주체가 돼 디지털 혁신의 기획(Plan)과 실행(Do)을 모두 이끌어야 한다"며 모든 임직원이 실무 능력과 디지털 역량을 모두 갖춘 '양손잡이' 인재가 될 것을 주문했다.

◆**자산운용 체질 강화**

신 회장은 자산운용 체질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장기 부채에 매칭되는 장기 우량채권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안정성이 담보되는 국내외 대체투자 자산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

그는 "해외 자산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투자자산의 손실 위험은 없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자산운용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영업현장에서는 완전가입에 더 힘쓰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보장유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본사는 영업·서비스 관련 정책과 제도 수립 시 소비자보호 관련 리스크까지 철저히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혁신추진TF 신설... '경영 혁신' 강조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후 가진 첫 공식회의에서 '혁신'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벵커스클럽에서 가진 새해 첫 '경영현안 점검회의'에서다. 이날 회의에는 윤종원 은행장과 전 임원이 참석했다.

경영현안점검회의는 월 2회 은행장 주재로 전 임원이 모여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주요 경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정례회의다.

윤 행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도 개혁 등을 통한 '혁신금융' 선도,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한 조직 문화 혁신 등 '경영 혁신'을 강조하며, '혁신 추진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주문했다.

또 미·이란 갈등 등 국제 경제상황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장상황 등을 점검하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방지 대책 등도 논의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은행장의 의지"라며 "현재 사업그룹별로 업무 현황과 계획 등을 보고 받고, 경영 계획을 구상하는 등 정상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금융그룹, 연신내 종합금융센터 신설

은행·증권 한 곳에서 처리

신전략거점 서북지역 첫KB금융 점포 WM, CIB 포함 총 79개의 복합점포망

KB금융그룹은 지난 13일 '골드앤와이즈(GOLD&WISE) 라운지 연신내 종합금융센터' 자산관리(WM) 복합점포를 신규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의 WM복합점포는 총 70개며, 기업투자금융(CIB) 복합점포 9개와 함께 총 79개의 복합점포망을 보유하게 됐다.

'골드앤와이즈 라운지 연신내종합금융센터'는 서울시가 신전략거점으로 지정한 서북지역의 첫번째 KB금융 WM 복합점포다. 서울 서북권 지역 고객은 은행 및 증권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금융의 복합점포 확대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을 바탕으로 평소 윤종규 회장이 강조하는 '원펀(One Firm), 원(One) KB' 및 그룹

시너지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수요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 고객에게 적합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합점포에서는 고객이 은행·증권 점포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복합점포에 마련돼 있는 공동상담실에서 은행·증권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은행·증권의 우수 PB가 하나의 팀이 되어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며, 부동산투자자문·세무컨설팅·해외주식세미나 등 고객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연신내 WM복합점포의 KB증권 계좌로 국내외 주식을 입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10만원의 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하는 'KB증권 주식입고 이벤트'가 3월 말까지 진행되며, 와인 강화 등의 다채로운 고객 초청 문화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은행 고덕동지점 객장.

신한은행 영업점 디자인도 '고객중심'

신한은행은 고객중심으로 '점포 디자인 표준안'을 개발하고, 고덕동지점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진옥동 행장의 고객중심 경영전략에 발맞춰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점포 디자인 개발을 진행해 왔다. 신한은행은 다양한 고객들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고객들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편안함, 신뢰감 같은 정서적 만족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새로운 점포 디자인 표준안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켰다.

새롭게 적용된 신한은행 점포 디자인 표준안의 주요 특징은 ▲인테리어 색상 변화, 1인용 의자 도입 등을 통해 편안한 객장 분위기 조성 ▲창구 파티션 높이, 모양 변화로 고객 프라이버시 강화 ▲순번표시 화면 위치를 고객 눈높이로 조정 ▲정보 전달을 위한 대형 전광판, 디지털 포스터 등 디지털 트렌드 반영 등이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점포 디자인 표준안은 앞으로 신규·이전 개점, 리모델링 등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신한은행 영업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NH농협카드 포인트로 기부 '올바른 기브카드'

NH농협카드는 공익 가치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카드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기반으로 기부서비스가 제공되는 '올바른 기브(GIVE) 카드'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바른 기브 카드는 '올바른 생활카드'를 슬로건으로 전개하는 올바른 카드 시리즈 중 기부에 특화된 카드로, 기부와 할인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드 이용 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전월실적이나 적립한도 제한 없이 결제 금액의 0.8%가 러브포인트로 적립된다. 러브포인트는 NH농협카드가 운영하는 기부전용 포인트로 고객이 지정한 기부처에 전액 기부된다. 기부 방식은 러브포인트 기부와 월정액 기부로 나뉜다. 러브포인트 기부는 매월 카드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러브포인트만큼 기부하는 방식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지난 13일 연신내 WM복합점포 개점식에서 KB국민은행 김필수 본부장(왼쪽에서 두번째), KB증권 윤만철 상무(왼쪽에서 세번째)가 임직원과 함께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국민은행



기아차 '텔루라이드', 美 SUV 왕좌

‘올해의 차’ 선정... 3관왕 달성

기아자동차가 한국자동차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기아차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TCF센터에서 열린 '2020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텔루라이드(사진)가 스포츠유틸리티(SUV) 부문 '북미 올해의 차'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0 북미 올해의 차' SUV 부문에는 기아차 텔루라이드를 비롯해 현대차 팔리세이드, 링컨 에비에이터 등 총 3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고 치열한 접전 끝에 텔루라이드가 최종 선정됐다.

텔루라이드에 대해 북미 올해의 차 주최측은 "럭셔리 SUV 수준의 디자인과 프리미엄 경험을 선사하는 신사양 및 성능을 겸비한 SUV"라고 평가하며

"기존 SUV 브랜드 들이 긴장해야 할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라고 극찬했다.

이로써 텔루라이드는 '2020 북미 올해의 차'와 세계 최고 자동차 전문지로 꼽히는 모터트렌드의 '2020 올해의 SUV' 미국 유명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의 '2020 10베스트'까지 북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 상들을 동시에 석권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기아차의 '북미 올해의 차'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스티어링 휠 부문 최종 후보까지 올랐으나 아쉽게도 혼다 어코드에 자리를 내어줬다.

기아차 텔루라이드는 지난해 2월 미국 시장 출시 후 1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6만대(5만8604대) 가까이 판매됐다.

/양성운 기자 ysw@

美 세렌스와 손잡고 웹OS 오토에 음성인식 솔루션

LG전자, 車 인포테인먼트 강화

내비-멀티미디어 콘텐츠 재생 음성인식 적용하는 플랫폼 개발 협업을 커넥티드카 개발 속도

LG전자가 웹OS 오토에 음성인식 솔루션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렌스와 차량용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과 세렌스 CEO 산자이 다완 등 주요 인사들이 여럿 참석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웹OS 오토 기반 인포테인먼트(IVI) 시스템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내비게이션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생 등 기능을 음성인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웹OS 오토는 LG전자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이다. 생태계를 개방해 시스템온칩(SoC)부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여러 기업과 함께 구축 중이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왼쪽)과 세렌스 CEO 산자이 다완.

/LG전자

다. 이에 따라 커넥티드카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세렌스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업체 뉴앙스에서 자동차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차량용 음성인식 분야에서 20년 이상 연구 개발을 이어왔으며, 3억대 이상 차량에 솔루션을 적용했다. 70여개 언어를 지원하는 음성인식 엔진을 공급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세렌스 CEO 산자이 다완은 "양사가

협업해 자동차 제조사나 티어1(Tier1, 자동차 제조사의 1차 공급업체)이 고객들에게 최첨단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은 "세렌스와 협업해 커넥티드카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웹OS 오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자동차 제조사나 고객에게 수준 높은 차량용 인공지능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SK, AI 강의 등 사내 교육 플랫폼 출범

‘마이써니’로 미래역량 제고

SK그룹이 사내 교육 플랫폼 '마이써니(mySUNNI)'를 출범한다고 14일 밝혔다.

마이써니는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최태원 회장이 최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성원 미래 역량을 키우고 축적해야 한다고 주문한 결과다.

SK는 우선 올 연말까지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T) ▲혁신 디자인 ▲행복 ▲사회적 가치 ▲리더십 등 8개 분야 450개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어서 반도체와 에너지 솔루션 등

분야로 확대를 계획했다.

강좌는 국내·외 교육 콘텐츠 개발업체와 연구기관, 컨설팅 기업 등과 함께 만들기로 했다. 미래학자인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교수, 카이스트 스마트에너지 인공지능연구센터장 이한규 교수,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섰다. SK 관계사 CEO 등 임원들도 직무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SK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진로에 맞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연간 근무시간의 10%에 해당하는 200시간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강남에 고품격 청음 공간 마련

LG 사운드바·오브제 오디오 등 전시

LG전자가 프리미엄 오디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LG전자는 14일 서울 강남 LG베스트샵 강남 본점에 프리미엄 사운드 청음 공간을 열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수요가 많은 강남 본점에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LG 프리미엄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마케팅을 기획했다.

공간은 LG전자와 영국 오디오업체 메리디안과 협업해 조성됐다. 기술뿐 아니라 메리디안 사운드 철학도 담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졌다. 양사는 사운드 튜닝과 신호처리, 음향 밀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했으며, 메리디안 음향 전문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 검증하



LG전자는 강남 LG 베스트샵 강남 본점에 프리미엄 청음 공간을 오픈했다. /LG전자

기도 했다.

전시 제품은 '오브제 오디오'와 'LG 사운드바', 'LG 엑스봄 고' 등이다. LG 시네빔 레이저 4K 프로젝터도 함께 전시해 사운드 몰입감을 더했다. 100만원 상당 메리디안 고성능 스피커도 체험을 돕는다. /김재용 기자



포드 몬데오

포드 '몬데오', 패밀리세단 입소문 타고 흥행

친환경 엔진으로 14.5km/L 복합연비 무릎 등 에어백 7개 탑재해 안전성 ↑

국내 자동차 시장은 단순한 가성비 넘어서 가성비 높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지난해 11월 부분 변경 모델로 출시한 중형 세단 몬데오도 가시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몬데오는 포드 대표 세단 모델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을 겸비해 그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달성해왔다. 특히 새로운 몬데오는 안전 주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첨단 기능과 이전 세대 대비 향상된 주행 성능 및 연비로,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패밀리 세단으로 조용히 입소문을 타고 있다.

우선 몬데오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파워트레인으로 향상된 주행 성능과 연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몬데오는 고성능 2.0L 디젤 엔진으로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한층 더 파워풀해진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와외의 조화로 다이내믹하면서도 효율적인 드라이빙을 선사한다.

특히 로터리 방식 자동 변속 방식으로 용이해진 기어조작과 스티어링 휠에 장착된 패들 슈프트를 통해 이전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고효율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이전보다 개선된 14.5km/L의 효율적인 복합연비를 보여준다.

다양한 첨단 기능을 적용해 안전성도 높였다. 충돌에 약한 무릎 부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7개의 에어백을 적용했다. 특히 아이들이 주로 탑승하는 뒷좌석 안전벨트에는 팽창형 에어백이 마련돼 있어 사고발생시 상대적으로 충돌에 취약한 어린이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동승자의 신체조건에 따라 에어백 전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동승자 감지 에어백 시스템을 장착해 탑승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몬데오의 디자인은 자신감 넘치는 스타일을 보여준다. 특히 정지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모습은 포드 유럽의 디자인 DNA, '키네틱'을 적용해 개발했다.

전면부 디자인은 새롭게 변경된 상단의 부채형 전면 그릴과 안개등, 그리고 옛지 있는 포드 다이내믹 LED 헤드램프로 강렬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선사한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쿠페 스타일의 측면은 낮은 루프 라인과 한 줄의 슬더 라인을 통해 민첩함과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주며, 후면은 포드 유럽 패밀리 룩 LED 테일 램프와 매끈하게 처리된 테일 파이프로 세련미를 가미했다.

또한 몬데오는 2850mm의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넓고 안락한 내부 공간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앰비언트 라이팅 시스템으로 운전자 취향에 맞게 내부 조명 컬러를 변경할 수 있다. 몬데오는 신규 색상인 블루 메탈릭, 디퓨즈드 실버, 어반 톨 등이 추가돼 총 11가지의 외관 컬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격은 트렌드 모델 기준 424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Harrington Tower 

살아도 좋고, 투자는 더 좋은 여의도 해링턴타워 196



중도금 무이자
60%

전 세대 복층형 오피스텔

여의도 해링턴타워 196

출근은 여의도, 퇴근은 해링턴타워로!
서울 2030플랜에 따라 강남, 광화문과 더불어
서울 3대 도심축으로 급부상하는 영등포의 중심!
여의도 20만 배후 주거지에 투자하십시오.

- BIG 1** 영등포개발의 최대수혜지 (국제금융업무지구 / 영등포뉴타운)
- BIG 2** 트리플 역세권의 편리한 교통!
- BIG 3**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등 풍부한 주거환경 인프라
- BIG 4** 루프가든, 공유주방 등 프리미엄급 커뮤니티 시설
- BIG 5** 전 세대 복층형 오피스텔



 여의도까지
지하철 1정거장

 신길역 400m
신안산선 (예정)

 영등포
뉴타운 개발

 중도금 무이자
60%

시행수탁자:  KOREA trust
시행위탁자:  DAE
시공사:  진흥기업(주)
분양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홍보물에 기재된 내용은 사업성 또는 허가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일러스트,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012-0808

“렌탈시장 확대·가전시장 성장” “경영화두는 혁신... 미래사업 집중”

1조 클럽 향한 ‘마법의 주문’

(매출)



지난해 매출 8000억 훌쩍 넘겨
최근 4년간 年 평균 성장률 21%

SK매직이 올해 ‘매출 1조 클럽’ 진입을 위한 ‘마법’을 본격 시작했다.

1조원 매출을 달성하고 내진 김에 기업공개(IPO)까지 가기 위해 벌써부터 상장 주관사도 정해 놓은 상태다.

14일 SK매직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약 83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앞서 SK매직이 공시한 1~9월까지의 매출액(연결 기준)은 6458억원이었다. 지난해 매출이 8000억원을 훌쩍 넘으면서 올해 매출 1조원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SK매직은 2013년 당시 29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3544억원(2014년)→3903억원(2015년)→4692억원(2016년)→5479억원(2017년)→6591억원(2018년)으로 빠르게 늘었다. 특히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연평균 성장률만 21%로 성장 속도가 빠른 모습이다.

2018년 3월 당시 류권주 SK매직 대표는 ‘2020년까지 매출 1조원, 렌탈 누



류권주 SK매직 대표이사.

적 계정 300만’을 중심으로 한 ‘비전 2020’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류 대표는 “우리 모두가 2년전 약속했던 목표인 ‘비전 2020’을 완성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져본다”면서 구성원들에게 ▲제품 품질 혁신 ▲원가 절감 ▲서비스 품질 혁신 ▲차세대 전자적자원관리(ERP)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BPR) 성공 완수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류 대표는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렌탈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확대하고 가전 시장의 성장 정체를 돌파해 올해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자”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히태수 회장 디자인 싱킹 심포지엄



GS 에너지 등 임직원 대거 참여
선진 기업 혁신 방법론 계열사 전파
사업진화·미래역거리 발굴 강조

히태수 GS그룹 회장이 취임 후 첫 경영화두로 ‘혁신’을 제시했다. 히태수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로 기존 사업 진화와 미래사업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히태수 회장은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스탠퍼드 디자인 싱킹 심포지엄 2020에 계열사 CEO 등 임직원 100여명과 함께 참석해 혁신을 강조했다 GS가 14일 전했다.

히 회장은 스탠퍼드대 디자인 센터장인 래리 라이퍼 기계공학과 교수 등과 만나 “외부와 협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실리콘밸리 선진기업들의 혁신 방법론을 각 계열사에 전파해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들을 포함해 다양한 사업 상대들과 협력



히태수 GS 회장.

관계를 구축해 건강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히 회장은 연초 신년 모임에서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강조한데 이어 곧바로 직접 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 마인드를 독려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혁신 전도사로서 변화의 신호탄을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GS는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법인 설립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되면 혁신 문화 정착과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미래 전략을 펼칠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히 회장이 직접 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 마인드를 독려하는 기회를 마련

하고 나선 배경에는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GS는 전했다.

또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꾸는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으면 세계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절박함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GS에 따르면 히 회장은 GS홈쇼핑 대표 시절 ‘흐름을 주도하는 업체’를 지향하며 패션 등 상품의 수준을 끌어올렸고, 케이블 SO인 GS강남방송과 GS올산방송을 매각하는 대신 모바일 투자를 대폭 늘려 업계 1위 발판을 마련했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2011년부터 국내외 스타트업 500여곳에 직·간접적으로 총 3000억원을 투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GS에너지, GS칼텍스, GS리테일, GS홈쇼핑, GSEP, GSE&R, GS파워, GS건설 등 계열사 임직원들이 대거 참가했다.

스탠퍼드 디자인 싱킹 심포지엄 2020은 미국 스탠퍼드대의 ‘스탠퍼드 이노베이션 & 디자인 연구센터’(스탠퍼드 혁신센터)가 주최한 행사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문제 해결 혁신 방법론으로 알려진 디자인 싱킹을 소개하고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GS는 전했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온라인투어

www.onlinetour.co.kr
상담문의 1544-3663

터키일주(직항+특급호텔) 8/9일
799,000~ 1/17,20,21,25,28,31~ [선착순]

①보스포러스 정류선 ②파묵칼레 온천 포함 ③5대 특식 제공 ④Wi-Fi 버스

동남아/홍콩/대만

02)3705-8100

보라카이/세일링보트/전신마사지 4/5일
338,000~ *인기상품 선착순 특가
1/17 [단회 특가] 1/16,18, 선착순
1/19,20,21,22,23,24,25,26,27,28,29,30,31,2/1,2,3,4,5,6- 선착순

마닐라/루이비통 3일 248,000~
푸켓 특급리조트 5일 528,000~
방콕/파타야/비니절자유 5일 478,000~

다낭/호이안/바나산 4/5일

448,000~ 1/21 [단회 특가] 1/16,17,18,19,20, 선착순
1/22,23,24,25,26,27,28,29- 다낭

하노이/하롱베이/엔트 5일 418,000~
나트랑/미니버치해변 5일 498,000~
라오스/비엔티엔/방비엥 5일 398,000~
나트랑/항공권/자유여행 4일 318,000~

코타키나발루/반딧불 5일

448,000~ 1/16,17,18,19,20, 선착순
1/21,22,23,24~

코타키나발루/넥서스리조트 5일 598,000~
브루이엘/파이어호프/노스프 4/5일 1,248,000~
대만/야우+지우+쉬안+화롄 4일 499,000~
싱가포르/말라카/조호바루 4/5일 898,000~

유럽

★전용 수선기 제공(일부지역)★ 02)3705-8150

발칸 2국/동유럽 4국 9일 1,190,000~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12일 1,790,000~

중국

02)3705-8110

장가계 천문산 4/5일 199,000~
청동/5.4광장/특급호텔 3일 129,000~

호주/뉴질랜드

02)3705-8140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999,000~
뉴질랜드/시드니 10일 2,190,000~
시드니/센트럴코스트 6일 999,000~
뉴질랜드 북섬 6일 1,299,000~

괌/사이판

02)3705-8140

사이판 PIC리조트 골드 4일/5일 569,000~
괌 PIC리조트 골드 4/5일 699,000~
괌 윈워드리조트 4/5일 499,000~

베네룩스/프랑스 7일 1,290,000~
서유럽 3국/남부투어 8/9일 1,290,000~
서유럽 3국/환상남부 10일 1,790,000~
서유럽 4국/파리야경 10일 1,890,000~
서유럽 4국/6국 12일 1,990,000~
스페인/포르투갈 9일 1,590,000~
이집트 완전일주 10일 1,899,000~

게임/양식(체인호텔) 5/6일 399,000~
장가계적왕/원가계 4/5일 399,000~
북경/만리장성/서커스 4일 129,000~
서안(화산)/진시황릉 4일 289,000~
여강(리장)/중경 4일/5일 799,000~
황산/항주+온케이불가 4/5일 449,000~
공명/석림/구항동굴 5일 719,000~

하문/토루/고양서 4일 399,000~
장가계/천문산/만복천 4/5일 399,000~
상해/주자각(항주) 4일 209,000~
대전/동부수성/러시아거리 3일 179,000~
백두산 천지 2회 등정 4일 299,000~
구재구(황릉) 5/6일 299,000~
하이난 관광+휴양 5/6일 399,000~

벵부/유혹인/후쿠오카 3일 249,000~
오사카/나라/교토 3일 299,000~
국내 02)3705-8300

미주/특수

02)3705-8180

미서부 6대 캐년(모뉴먼트밸리) 10일 1,590,000~
시애틀/캐나다 로키 7/8일 999,000~
시애틀/로키/미동부캐나다 15일 2,490,000~
남미(이과수/우유니) 4국 11일 4,990,000~

미동부캐나다(퀘벡백) 10일 2,290,000~
하와이(관광+자유) 6일/7일 1,240,000~
미서부+미동부캐나다 12/15/18일 2,790,000~
중남미 6개국 18일 9,590,000~

[엘리버드] 아시아나 제주여행 3일 155,000~
[NO팁, NO음식] 고품격 제주 3일 260,000~
[여수여행] 유람타마나 에메랄 3일 253,000~

■한시에서 별도 지불해야하는 기사, 가이드경비, 003로 표시(상세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참조)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유류할증료(발전원/항공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필수 경비 모두 포함
■상품에 따라 선택관광경비 발생할 수 있음. 선택관광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가능(+510~\$300상).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포함여부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참조(www.onlinetour.co.kr)

“JV 통해 中 저가공세 대응... 阿·중동 등 신시장 발굴”

(조인트벤처)

건설, 飛上 2020 전략



쌍용건설이 해외사업에서 차별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역량을 키우고 있다. 또 쌍용건설은 올해 2년 만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 전국에선 총 7600여가구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반등이 예상된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신시장 발굴 통해 먹거리 확보 심도있는 교육 통해 인력강화

2년 만에 서울서 아파트 분양 전국 7600여 가구 주택 공급 시공능력평가 순위 반등 기대

적극 발굴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의 해외 수주 실적은 남다르다. 쌍용건설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1800병상, 7억4000만 달러(8000억원) 규모의 병원 공사를 진행 중이다. 병상으로 따지면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병원 공사 프로젝트로 쌍용건설은 2018년 3월 싱가포르 보건부로부터 수주했다. 공사기간은 33개월이다.

지난해 5월에는 2000억원 규모의 ‘두



쌍용건설 '더 플래티넘 오목천' 조감도.

/쌍용건설

바이 윈 레지던스’ 공사, 2200억원짜리 아프리카 적도기니의 바타 국제공항 시공권도 단독 수주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약 3500억원 규모의 ‘옥슬티타워’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는 성공했다.

중국업체의 초저가 공세에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와 조인트벤처(JV, 합작) 형식으로 수주를 추진하고 기술력을 더욱 향상하는 등 구체적 노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인재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 회장은 “우리가 매일매일 특화된 시공과정에서 겪는 새로운 경험과 극복과정은 우리의 특화된 노하우이며 자산”이라며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즉각 현장에 투입 가능한 대체 불가 인력양성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은 2018년 국내 주택시장에 ‘더 플래티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올해는 ‘더 플래티넘’ 브랜드

가 더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회장은 “국내 주택시장은 여전히 30만호의 꾸준한 시장이 존재한다”면서 “회사 전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년 만에 서울서 아파트 분양

강점을 지닌 고난도 건축·토목분야에서 시공실적을 쌓는 것은 물론 국내 주택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쌍용건설은 올해 총 7682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일반분양은 4705가구로 ▲아파트 3527가구 ▲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363가구 ▲오피스텔 768실 ▲테라스하우스 52가구다. 지역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서울·수도권 3044가구 ▲부산 301가구 ▲대구 84가구 ▲경남 874가구 ▲전남 192가구다.

본격적인 분양은 오는 2월부터 시작된다. 2월에 공급 예정인 단지는 3곳으

로 ▲경기도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아파트 930가구(일반분양 721가구) ▲부산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주상복합 171가구(오피스텔 포함, 일반분양 171가구) ▲서울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 오피스텔 576실(일반분양 576실)이다.

특히 서울 분양은 약 2년만으로 ‘더 플래티넘’ 통합 브랜드 론칭 후 첫 서울 입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쌍용건설은 3월 ▲서울 송파구 쌍용 더 플래티넘 잠실 오피스텔 192실(일반분양 192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294가구(오피스텔 포함, 일반분양 294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후 4월부터 공급물량이 늘어나 6월까지 공급 예정인 일반분양 가구수는 2670가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인천 주안3구역 재개발 2054가구(일반분양 1327가구) ▲경남 창원 교방1구역 재개발 1538가구(일반분양 874가구) 등 대규모 아파트공사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2분기에는 ▲경기도 광주 초월읍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총 482가구, 일반분양 130가구) ▲부산 거제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총 482가구, 일반분양 130가구) ▲전남 완도 주상복합(총 192가구, 일반분양 192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4분기에는 서울 송파구 오금아남 아파트 리모델링(총 328가구, 일반분양 29가구) 공급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했다.

/정영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앨러진 보형물’ 희귀암 우려... 반사이익 기대

株라쿨라의 종목

인공보형물 제조 |한스바이오메드|

앨러진·멘토사 등 中 시장 과점 희귀 림프종 우려에 퇴출 수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거론되면서 한한령이 급속히 해제되는 모습이다. 이전까지 중국 시장을 과점하고 있었던 앨러진과 멘토사(社)의 인공유방 보형물 텍스처 제품이 지난해 희귀질환(BIA-ALCL·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발병 가능성이 알려지며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어 한스바이오메드에 반사수혜가 기대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을 최성환 수석 연구원은 14일 “한스바이오메드는 지난해 하반기 페이스 리프팅실(MINT)과 인체조직재(ExFuse)의 중국 판매허가를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1999년 설립된 바이오기업으로 실리콘 보형물과 인체이식용 이식재 뼈 피부 의료기기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국내 인공유방 보형물과 뼈 이식재 선두업체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리프팅실 세포 치료제까지 사업영역을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주요 제품별 매출비중은 성형외과에서 기습 확대술과 재건술에 사용하는 ‘실리콘 폴리머’가 41%, ‘인체

조직재’ 29%, 페이스 리프팅실과 같은 ‘의료기기’와 ‘기능성 화장품’이 28% 비중으로 최 연구원은 추정했다.

지난해 한스바이오메드의 주력 분야인 인공보형물 매출액은 199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글로벌 성형수술 가운데 유방확대술(17.6%)이 최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전방 시장도 크다.

최 연구원은 “세계 인공유방 보형물 시장은 약 1조2000억원 규모이고, 연평균 6% 성장하고 있다”며 “전방 시장확대에 따라 인공유방 보형물 벨라젤(BellaGel)을 판매하고 있는 한스바이오메드의 실리콘폴리머 사업 또한 동반 성장에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벨라젤 3세대를 중심으로 해외 매출처 다변화에 따른 실적 향상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러시아와 코스타리카 등 국가에 벨라젤 3세대 제품 판매허가를 받았고, 올해는 브라질, 중국 등 5개 국가에도 판매허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향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FDA 임상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경쟁사 인공유방 보형물에서 희귀질환 발병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한스바이오메드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8년 2세대 인공유방 보형물은 거친 표면의 텍스처 때문에 희귀질환 발병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점유율 감소가 시작됐다”면서 “3세

대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한스바이오메드에 반사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약 12조원 규모인 글로벌 인체조직재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아시아 최초 미국조직은행연합회(AATB) 가입 기관이고, 국내 1호 조직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인체조직재 매출은 연평균 9% 성장해 왔다.

최 연구원은 “인체조직재 부문은 지난해 11월 중국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판매승인 받은 ‘익스퓨즈(ExFuse)’ 제품에 달렸다”면서 “현재 중국에 판매허가를 받은 기업은 한스바이오메드와 미국 라이트 메디컬 그룹(Wright Medical Group)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스퓨즈’는 올해 초도 물량 수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의료기기 부문은 리프팅실과 모발이식기 관련 매출로 구분된다. 이중 리프팅실은 지난해 수출매출이 56억원을 기록했고, 최근 3년 평균 178% 성장을 보였다. 올 하반기 신규라인 제품도 중국 허가를 앞두고 있어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리서치알은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 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2만9500원을 제시했다. 2020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1180원에 주가수익비율(PER) 25배를 적용한 결과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GS건설, 한남 하이츠 재건축 청사진 공개

GS건설은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남하이츠를 “한남자이 더 리버”로 재건축해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GS건설은 8개동 총 535가구 규모의 한남하이츠를 지하 6층~지상 최고 20층의 아파트 10개동 총 790가구와 근린생활시설 1개동 규모로 바꿀 예정이다. 한남자이 더 리버 조감도

/GS건설

대우·SK건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2월 분양

미니 신도시급 주택공급 예정지 3603가구 중 1795가구 일반분양

구가 일반분양 된다.

대우건설과 SK건설 컨소시엄이 오는 2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매교역 일대는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중심지로 도시경비사업을 통해 약 1만2000가구 미니신도시급 주택 공급이 예정됐다.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원에 들어서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인근 재개발 사업지 중 최대 규모인 3603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2개동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별로 ▲59㎡A 234가구 ▲59㎡B 114가구 ▲59㎡C 35가구 ▲74㎡A 188가구 ▲74㎡B 383가구 ▲84㎡ 710가구 ▲99㎡ 105가구 ▲110㎡ 26가구 등 총 1795가

교통은 분당선 매교역이 근처에 있다. 수원역, 서수원 버스터미널과도 가깝다. 예비타당성 검토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준공을 앞둔 수인선(2020년 예정)과 트램(2023년 도입 추진), GTX-C노선(2024년 예정) 등이 조성되면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매교초가 예정되어 있으며, 수원중학교 및 수원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정영우 기자

“개방·도전으로 초일류 카드사… 빅데이터로 상생”

카드, 飛上 2020 전략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올 경제 장기침체에 ‘새 길’ 전략 ‘디지털 혁신’으로 고객경험 고도화 업계 첫 ‘링크’ 서비스 고객에 호응 링크 파트너즈 구축으로 상생 성과

삼성카드는 2020년 전략을 ‘개방’과 ‘도전’으로 잡았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질과 역량을 확보하고, 개방과 도전을 통해 미래를 혁신하는 일류 카드사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삼성카드만의 시각으로 ‘일류 카드사’ 달성

올해 카드업계가 처한 경영환경은 결코 희망적이지 못하다. 국내외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돌입했고,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경쟁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빠른 기술과 환경의 변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예측에 기반한 준비와 대응이 어려워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삼성카드는 기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과 접근을 활용해 삼성카드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는 ▲회원기반 확대 및 개인화된 고객경험 강화 ▲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활용 역량 심화 ▲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결제·금융을 넘은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 등을 꼽았다.

우선 삼성카드는 회원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자사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심화시킬 계획이다. 원 사장이 그동안 경영 화두로 내세운 ‘실용주의적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비용은 절감하고,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삼성카드는 업계 최초로 24시간 365일 카드 심사 발급체계를 구축하고, 회원 모집을 태블릿PC 기반으로 전면 대체해 카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3일 가량 단축했다. 향후 삼성카드는 이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로세스 효율화를 지속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회원기반을 넓힐 전망이다.

디지털 혁신 정책을 통해 개별 고객의 경험도 한층 고도화한다.

지난 3월 삼성카드는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샘’을 도입했다. 샘은 고객이 디지털 채널 또는 콜센



삼성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출시한 ‘링크(LINK)’서비스.

/삼성카드

터를 통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드추천 및 신청 ▲이용내역 조회 ▲금융상품 신청 등을 맞춤형 챗봇 메뉴로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한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고객의 호응을 이끌며, 삼성카드는 업계 최초로 국가고객만족도(NCSI) 신용카드 부문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 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로 만드는 상생 생태계

삼성카드는 미래 핵심 자산인 데이터 분석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시킨 실시간·개인화 마케팅을 고객에게 선보인다.

2014년 카드업계 최초로 선보인 ‘링크(LINK)’ 서비스가 큰 고객 호응을 얻으며, 삼성카드의 빅데이터 역량은 한층 고도화했다. 링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특화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쿠폰이나 문자를 제시할 필요 없이 삼성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제공된 혜택을 미리 선택해 놓으면 카드결제시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이어 삼성카드는 ‘링크 비즈니스’를 출시해 고객은 물론, 중소기업들과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링크 비즈니스는 중소기업주가 가맹점 전용 홈페이지에 고객에게 제공할 혜택을 직접 등록하면, 삼성카드가 자사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스마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당 혜택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혜택 종료 후 고객 인입 효과 등을 가맹점주가 일목요연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성과 분석 시스템도 함께 제공해, 소비자와 가맹점을 아우르는 공유가치(CSV)를 창출했다는 평가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링크 비즈니스를 통한 타겟 마케팅을 더욱

정교하게 개별 영세중소가맹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량 프랜차이즈 및 사회적 기업과의 업무 제휴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대표 마케팅 플랫폼의 위치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영·협업 유연화로 미래 불확실성 대비

삼성카드는 이밖에도 다양한 산업군과 함께하는 오픈 콜레버레이션을 진행해 사업 생태계를 확장한다.

올해 삼성카드는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인 메쉬코리아와 함께 ‘부릉’에서 배달대행료를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부릉 삼성카드 비즈(BIZ)’를 출시했다.

이어 국내 1위 헤어 브랜드 기업인 ‘준오뷰티’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해 공동 멤버십 프로그램 및 디지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연한 경영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원 사장이 과거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28년 동안 일한 인사 전문가인 만큼,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인력 확보와 조직 문화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 사장은 “삼성카드가 이제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삼성카드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카드업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을 위해 나아가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인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예탁결제원 신임사장에 이명호 유력

29일 임시주총서 후보의결, 승인

한국예탁결제원의 22대 사장에 이명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결제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 후보자에 응모한 이들 중 3명의 개별 면접을 마쳤다. 오는 29일 임시주총회를 통해 후보 1명을 의결한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증권가에선 “이 전문위원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전문위원은 금융위에서 요직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 증권감독과장, 자본시장과장, 행정인사과장, 구조개선정책관(국장) 등을 역임했다.

예탁원 관계자에 따르면 늦어도 내달 초까진 신임 사장 선임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철저한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후보에 관한 정보나 면접 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전문위원과 김근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제해문 예탁원 노조위원장 등이 후보로 경쟁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원은 정부 관료 출신이 대부분



사장직을 지냈다. 내부 출신이 사장 자리에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실제로 이번 후보로 거론된 이들 역시 제해문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위 관료 출신이다. 김근의 원장은 행시 34회에 합격한 후 금감원, 금융위 등을 거쳤다. 전임 사장인 이병래 사장 역시 행시 32회에 합격한 후 재무부와 금감원, 금융위에서 활동했다. 제위원장은 1995년 예탁원에 입사한 ‘원클럽맨’이다. 관료 출신 인사들이 유력 후보로 지목된 가운데 차기 사장 모집에 공개적으로 뛰어들어 화제를 모았다. 그는 1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실무자 사이에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 면접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임추위에서 이미 후보자를 특정했지 않느냐”고 에둘러 말했다.

한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예탁원 사장 연봉은 2018년 기준 3억9944만원 수준이다. 신임 사장은 다음달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 동안 임기를 수행한다.

/송태화 기자 alvin@

파스처럼 ‘붙이는 치매약’ 글로벌 No.1 도약



도네페질 치매패치 임상 3상 눈앞 노인 약물 투입, 먹는 것보다 간편 패치형, 혈중농도 일정하게 설계

코스닥 상장 기업 아이큐어가 도네페질 치매패치 임상 3상 돌입 코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제형 연구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큐어는 이 도네페질 치매패치로 치매 약물 패치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노린다.

아이큐어는 도네페질이라는 치매 약물의 패치를 개발 중이다.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패치는 파스와 같이 붙이는 형태로 약물을 흡수하는 것이다. 말미약인 귀미테과 유사한 형태로 작용한다. 치매 약물은 리바스틱아민, 메만틴, 도네페질, 갈란타민 4가지가 있는데, 이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것이 도네페질로 전체 치매 약물 시장의 73%를 차지한다. 아이큐어는 이 도네페질 경구제를 패치제로 바꾸는 연구를 한다.

아이큐어 장관영 이사는 치매 약물은

경구 형태보다 패치 형태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치매를 앓는 노인들은 약물 흡수 대사가 망가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약물이 과다흡수되거나 덜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연하곤란을 겪어 입으로 약물을 먹기 어려운 이들도 있다. 경구 형태 약 투입을 잊기도 한다. 아이큐어의 도네페질 치매패치는 1주일에 2개의 패치만 부착해 경구제보다 훨씬 간편하고, 약물 유효농도 범위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장관영 이사는 “약물이 혈중 농도에서 유효농도 범위 이상 혹은 이하로 작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경구 제형은 혈중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이클을 만들지만, 패치는 일정한 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치매 약물 중 리바스틱아민이 패치제로 판매 중이다. 장관영 이사는 “리바스틱아민 패치가 발매 3년 만에 경구제의 93%를 대체했다”며 “오는 2020년 임상을 끝내고 2021년 판매를 시작하면 1123억원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이큐어가 개발중인 도네페질 치매 패치는 지난 2017년 10월 한국발명진흥원에서 사업 가치 3500억원, 특히 가치 18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를 받았

다. 한국발명진흥원은 아이큐어 도네페질 치매패치의 기술성·경제성·산업성 등을 따졌을 때 10년간 판매를 진행한다면 매출 총이익이 약 2조원 규모일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큐어는 현재 미국·유럽·중국·일본·말레이·호주·러시아·브라질·캐나다·인도에 해외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장관영 이사는 “이 특허가 2035년까지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도네페질 치매패치 3상 성공 가능성에 대해 장관영 이사는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자신했다. 장 이사는 “아이큐어는 10년 이상 패치만 연구했고, 이미 1상에서 약물 유효 혈중농도를 95% 신뢰구간에서 확보했다”며 “신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투여 방식을 바꾸는 것이어서 우호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열등성을 확인하는 것이라 잘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이큐어는 지난해 11월부터 ‘파렉셀’과 계약을 맺고 미국에도 임상을 진행 중이다. 파렉셀은 세계 3위의 글로벌 임상 기관으로, 아이큐어는 파렉셀과 임상 1상만으로도 허가가 나오는 빠른 허가 트랙으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장관영 이사는 “2021년 미국 진출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Ealton



E-ALTON ECONOVA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클래스는 영원하다’... “9개 모델 출시, 시장 1위 굳건히”

(수입차)

벤츠, 신년 기자 간담회



Mercedes-Benz

작년 7만8133대 판매... 역대 최고 B·E 클래스, SUV 라인업 계속 출시 모바일 멤버십 프로그램 공개 예정



마크 레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 & 마케팅 부문 총괄 부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



조명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네트워크 개발 & 디지털 하우스 부문 총괄 부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EQ Future 전시관에서 열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020년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올해에도 수입차 시장 1위를 지키겠다는 포부를 확고히했다.

벤츠는 14일 서울 가로수길 EQ 퓨처 전시관에서 신년 맞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계획을 발표하는 내용이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은 지난해 벤츠가 7만8133대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수입차 1위를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E클래스가 3만9788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C클래스와 SUV인 GLC 및 GLS, 더 뉴 A클래스와 AMG와 EQ 등 서브 브랜드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라키스 사장이 지목한 성공 비결은 ▲혁신 ▲제품비즈니스 ▲고객만족 ▲기업 책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4개 모델 등 신규 모델 출시와 AMG 드라이빙 센터 운영, 서비스센터 확충과 ‘기브’ 활동 등이다. 세계에서 7번째로 서울에서 ‘스타트업아우토반’을 개최한 데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실라키스 사장은 벤츠가 그동안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안전을 주도해왔으며, 안전시험차량 ESF를 통해 안전한 차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고 강조했다.

제품&마케팅 부문 총괄 마크레인 부사장은 올해 제품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여러 과제를 극복하고 5개 신규모델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12월에는 8421대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한국 시장 중요성을 강조했다.

벤츠는 올해 9개 신규모델과 부분변경 6개 모델을 새로 출시하며 수입차 시장 1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A클래스 세단인 스타트를 끊어, 뉴 CLA와 B클래스, E클래스 카브리올레와 SUV 라인업 GLS와 GLE, GLB, GLC 등도 계속 출시할 예정이다.

서브브랜드도 기세를 이어나간다.

마이바흐 S클래스에 풀만을 추가하고, 더 뉴 마이바흐 GLS도 새로 나온다. AMG도 GT 쿠페 등 부분변경으로 모든 세그먼트에 영향력을 확대한다. AMG 스피드웨이를 활용한 드라이빙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네트워크 개발&디지털 하우스 부문 총괄 조명아 부사장은 올해 네트워크 확장과 사회 공헌 등 계획을 밝혔다. 지난 5년간 네트워크를 2배 확장했으며, 지난해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도입해 소요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서비스와 부품물류센터를 2배 넓히는 등 성과부터 소개했다.

올해에도 벤츠코리아는 최고의 서비스로 모든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둔다는 방침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모바일 멤버십 프로그램 ‘케어포미(가칭)’을 전세계 최초로 선보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기부활동도 강화한다. 사회공헌위원회가 추진하는 ‘기브’ 프로그램을 바이크와 골프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에는 부산에서도 기브엔 레이스를 개최함과 동시에 ‘기브 앤 컬처’도 새로 추진한다. /김재욱 기자 juk@metroseoul.co.kr



권평오 코트라 사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13일 파나마에서 개최된 중남미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에 참석한 중남미지역 무역관장들과 함께 진출 다각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출방식 다각화... 韓 교역 업그레이드”

코트라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중남미 수주환경 변화에 대응

“새로운 생산·소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서 제품 수출 외에도 다양한 진출방식을 모색해 한국과 중남미 교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

권평오 KOTRA(코트라) 사장이 지난 13일 파나마에서 개최된 중남미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에서 현지 시장 진출을 다각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중남미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감소, 원자재 가격의 하향 평준화 등으로 0.2% 성장에 그쳤다. 올해는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중남미 수출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환경변화에 대응 ▲티모르를 통한 중남미 프로젝트 수주 ▲GVC 재편을 활용한 중남미 진출 ▲한-중남미 FTA 네트워크 활용 ▲한류 기반 중남미 소비재시장 진출 등 네 분야로 나눠 중남미 진출전략을 도출했다.

/양성운 기자 ysw@

휴롬, 공식쇼핑몰서 원액기 ‘50%’ 할인

휴롬은 공식쇼핑몰 ‘휴롬샵’에서 휴롬 원액기와 티마스터를 최대 50% 할인하는 설 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휴롬은 오는 20일까지 휴롬샵에서 원액기 휴롬원더와 휴롬엣지, 티마스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휴롬원더는 정가 대비 41% 할인한 25만4000원, 휴롬엣지는 19% 할인한 21만9000원, 티마스터는 50% 할인한 8만4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마일리지, 혜택 ↑... 제한적사용은 오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오해 풀기 홈페이지에 팝업창 띄우고 설명 추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대한항공이 ‘팩트 체크’를 통해 새 제도에 대한 오해 풀기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부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로워지는 스카이패스의 진실 혹은 오해’라는 팝업창을 띄우고 새 스카이패스 제도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대한항공의 팩트 체크는 크게 ▲마일리지 복합결제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사용 ▲우수회원 등 4가지로 나뉘었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구입 시,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고 항공 운임 20% 이내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복합결제의 경우 운임의 20% 밖에 쓸 수 없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내선 특가운임부터 장거리 국제선 일등석 운임까지 모든 운임의

20% 이내로 쓸 수 있어 사용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금 결제뿐만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다른 항공사와 달리 마일리지 지불분을 포함한 전체 운임에 대해 마일리지 적립되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제도 개편 후 적립 마일리지 가 줄어든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인천-싱가포르 ▲인천-애틀랜타 ▲인천-프랑크푸르트 구간을 예로 들어 동일 노선에 비슷한 금액을 지불해도 다른 항공사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미국만 한 번 왕복해도 우수회원이 될 수 있으며(예약 등급 E 이상) 우수회원이 되면 대한항공 편 탑승 시마다 20~80%까지 엘리트 마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불만이 집중된 보너스 항공권 구입에 관해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상하이, 베트남 다낭, 호주 브리즈번 등 예를 들어 이용률이 높은 일반석의 변경을 최소화해 공제 마일리지

가 인하·동결된 노선이 인산된 노선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항거리 증가에 따른 운임 증가보다 보너스 공제 마일리지 증가폭이 낫다는 점을 들어 개편 후에도 장거리 보너스 이용은 여전히 유상 구매 대비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적립률이 상향 조정돼 기존보다 적게 탑승해도 동일 구간 및 클래스의 보너스 항공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내세웠다.

한편 법무법인 태림의 박현식·김동우·하정림 변호사는 지난 12일까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대한항공의 공적거래위원회 고발 참여인단을 모집했고 이에 142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마일리지 변경에 대한 약관 심사 청구와 별개로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성수기 기준의 불명확성,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명절음식으로 가족요리 만들어보세요

홈쇼핑 ‘팍TV’ 통해 레시피 제안

홈쇼핑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활용한 가족요리 레시피 등 다양한 요리방법을 제안한다고 14일 밝혔다.

홈쇼핑은 지난해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V커머스 매장 ‘팍TV’(옛 플레이샷)를 모바일 앱에서 론칭한 바 있다.

V커머سر란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

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미디어콘텐츠와 전자상거래가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팍TV’에서는 상품 소개 및 활용법 등을 1~3분 가량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모바일 앱 내 ‘팍TV’매장에서 ‘황금레시피 BEST 30’ 기획전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설 명절 황금레시피

/홍&쇼팽

“긍정적 경제지표 늘어… 타다, 사회적 타협기구 필요”

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北美간 톱다운 대화의지 유효 3050클럽 중 韓 경제성장 2위”

북미간 비핵화 교착국면이 장기화 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낙관론’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이른바 북미간 하노이 노딜 후 비핵화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친서가 북한에 전달되는 등 ‘북미간 톱다운 대화 의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을 문 대통령이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현재 비핵화 국면 관련) 남북미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간 대화 관계가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 많았지만 북한은 시한 넘어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남북협력에 나서서 비핵화 대화 동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능하다.

◆경제반등 의지 다진 文대통령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때 ‘올해 수출 회복’을 통한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타다 등 혁신산업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존 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타협을 끌어갈 것임을 강조한 게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고 운을 뗐 후 “그러나 우리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한다. 신년사에 긍정적인 지표를 더 많이 말했을 수는 있다. 적어도 제가 말한 내용은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경제의 부정적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적인 지표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 지난해 우리가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과거 우리의 경제 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3050 클럽’ 중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 그리고 올해는 그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국제 경제기구, 한국은행, 경제 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 실제로 작년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달에도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거시경제가 좋

아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그런 삶의 체감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순 없다. 전체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그것이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서비스 이해관계’와 관련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을 해왔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규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아직 풀고 있지 못하다”며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통해 기존의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

장하면서, 또 타다 같이 새롭고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장 먼저 앞장서야’

문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 때 “검찰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역할하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앞장서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된다.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며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주어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결부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며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치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與 “진솔한 자리” 野 “대국민 선전포고”

文 대통령, 신년회견 與野 반응

민주당 “신년정국 구상 소상히 알려” 한국당 “국정 자화자찬… 반성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는 극적인 반응을 내놨다. 집권여당은 “진솔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은 “폭정을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비난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 기자회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생 도약으로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신년 정국

구상을 국민께 좀 더 소상히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며 “확신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깊게 공감한다”고 극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에 걸쳐 문답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 대변인은 “담대한 남북대화과 교류협력의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검찰개혁 등 사회 개혁 완수, 국민통합, 규제혁신, 민생·경제, 균형발전, 인구 대책, 정치, 외교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 넓은 대화가 이뤄졌다”며 “혁신·포용·공정·평화

를 위한 국정운영 과제를 빠짐없이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여전히 국정 자화자찬에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반성도, 개선의 여지도 없는 이벤트(행사)였다”며 “사법부까지 전부 틀어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움켜쥐고 지금과 같은 폭정을 계속 자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사법장악에 대한 지적에는 (문 대통령이) 동문서답에 측근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추미에 법무부 장관을 보내 자

행한 검찰학살을 개혁이라 말하는가 하면, 속보이는 작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박수갈채로 둔갑시켰다”고 비난했다.

앞서 보수권을 제외한 ‘4+1(민주당·시) 협의체’는 전날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여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과 관련해 “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빛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의 고초는 마음 아프고, 경악하고 있는 국민의 분노는 우습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스팸 빅데이터’ 개방 보이스포싱 막는다

방통위, 관련 기관과 협력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보이스포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 증거에 대응해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방통위는 최근 문자·음성스팸을 통해 도박 알선, 대출 사기, 주식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로 연결되는 문자·음성스팸 중 악성스팸에 대한 신고건수가 3년간 2배 이상 증가(2016년 712만 건 → 2019년 1564만 건)했으며, 2019년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1702만 건) 중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60% 이상(1035만 건)을 차지했다.

그동안 스팸 발송이 변칙표기 등을 통해 지능화돼 스팸 차단 기술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민·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스팸 차단 기술 및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그동안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되어온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하기로 했다.

스팸 데이터에는 URL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핵심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은 지난해 10월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

인재영입 나선 與… 보수당 통합나선 野

정치권 ‘총선체제’ 돌입

민주당, 이소영 변호사 영입 역통위, 신당창당 방향 등 모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막을 내리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집권여당은 지역구의 석 확보와 청년 인재영입에 몰두하고 있고, 야권에선 보수통합 시동을 걸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열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갖고 올해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과정에 접어들었고, 첫 관문이 총선”이라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에서 10석 가까이 양호한 쉼이니 지역

구에서 그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4월 15일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한 인재영입과 공약 마련, 민심 포섭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공천관리위 회의 후 총선 여덟 번째 인재로 환경·기후·에너지 분야 이소영(34)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년·여성에게 방점을 찍고 연이어 인재를 발표하면서 총선 대비에 나서고 있다.

국회의장 출신의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의 본격적인 국정 활동 시작으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입당도 본궤도에 오른 상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소영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민주당은 현재 이 전 총리 활용법을 고심하고 있다. 당 내부에선 이 전 총리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지역구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적 민심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수권에선 통합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의 ‘비례0당’ 등 명칭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이 수포로 돌아간 후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석대성 기자

대학가 소식



성신여대-하북과기대 한·중합작 의류디자인전공이 작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국국제대학생패션 위크에서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뒷줄 정가운데)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여대-중국 하북과기대
중 '국가급 일류학부' 선정

성신여대는 한·중합작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국 하북과기대의 의류디자인학과가 중국 교육부에서 지난 달 24일 발표한 2019년 4년제 학사 전공의 '국가급 일류학부 전공'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류학부 전공 선정은 중국정부에서 세계적 일류대학 및 세계적 일류학과 육성을 목표로 중국 내 최고의 고등교육기관 및 학과를 선정하는 쌍일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하북과기대 의류디자인학과는 1988년 학생모집을 시작해 2013년 3월 중국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성신여대와 한·중합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17년 합작 프로젝트 우수 평가를 받았다. 2017년 8월 양교의 학위를 받는 첫 졸업생이 탄생한 이후 그동안 103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왔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하북과기대 의류디자인학과는 일류학부 전공 선정으로 향후 중국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양교의 국제인재 양성 목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사이버대

신·편입생, 선배와 '오리엔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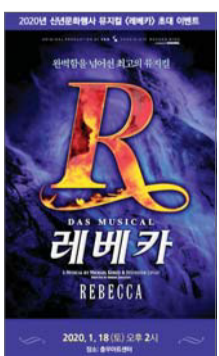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경희대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Coming-선배들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예비 경희인 3단계 프로그램' 중 2단계 프로그램으로 'Coming-선배들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2020학년 1학기 입학 예정인 예비 신·편입생 및 재학생, 동문, 그리고 경희사이버대학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해린 입학·학생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학사 수강 및 학생 프로그램 안내 ▲ 축하공연 ▲ 학과(전공) 오리엔테이션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사이버대

뮤지컬 '레베카' 초대 이벤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신년을 맞아 신·편입생 지원자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0 신년문화행사 뮤지컬 '레베카' 초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사이버대는 그동안 소프라노 조수미 초청 송년음악회, 발레 백조의 호수, 마타하리, 뮤지컬 맘마미아, 킵키부츠, 레미제라블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열어왔다. 올해는 세계적인 뮤지컬 레베카를 선보인다. /한용수 기자

원비 빼돌리면 징역형... 벌벌 떠는 원장들

'유치원 3법' 15개월 만에 통과

회계비리 적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설립·경영자 결격사유 등도 신설

유치원 원장이 원생 급식비를 덜 쓰고 남은 돈으로 명품백을 사는 등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난지 1년 3개월 만에 유치원 회계 비리를 형사처벌하는 법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은 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일부 유치원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개학연기를 발표하는 등 반대가 일었으나,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등 유치원 공공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했고, 이번 회계비리까지 가능하도록 법제도가 이뤄졌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장이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이른바 '셀프징계'가 가능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유치원 원장이 개인 출퇴근용 차량의 보험료를 내거나,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것이 적발되도 해당 금액

회수와 경고 등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정원감축,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만 가능했다. 기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은 현행과 동일하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가 신설됐고, 법을 위반해 운영정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가 공개된다.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시설과 설비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서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성대 교수-강사 'AI·빅데이터'로 몽친다

교원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기술 역량 증진, 학제간 융합 도모 30여 개 융합 교과목 운영 계획도

한성대학교 교수와 강사 등 전체 교원이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시대 핵심 기술을 배운다. 교원들의 창의융합 역량을 키우고 학제간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14일 한성대에 따르면, 창의융합교육원은 지난 1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교원 대상 '교원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한성대 교원들의 핵심 ICT 기술 분야 역량 증진과 학제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회가 대학에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과 융



한성대 학생들이 교내 상상파크에서 모션 트래킹(움직임을 디지털 형태로 기록) 시연을 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합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 빅데이터교육연구센터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R 기초 및 활용 교육' ▲ AI 교육연구센터의

'AI 기초 및 활용 교육' ▲ C&C School의 '3D 프린팅 활용 교육'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한성대는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올해 30여개 융합 교과목을 운영할 예정

이다. 한성대 C&C School(창의융합교육원) 노광현 원장은 "2020학년도 C&C School은 전공·교양 영역에서의 30여 개의 융합 교과목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이번 교원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교원들의 학제간 융합을 이뤄, 2020학년도 융합 교과목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성대는 앞서 지난해 7월 대학 혁신을 위해 창의융합교육원을 신설했다. 창의융합교육원은 전공과 교양과정에서 학제간 창의융합 교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핵심 ICT 기술 분야 창의융합교육을 제공한다.

또 지난해 11월 창의융합교육원 인프라 상상파크를 개관해 학생들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실습 장비, 3D 프린터 등 고가의 첨단 실습 기재를 활용하고 디자인씽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문송합니다"... 非전공 지원 인문계열 '최다'

구직자 55% "비전공 직무 지원" 인문계열 71% 1위... 공학 '최저'

구직자 절반 이상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직무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관련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14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구직자 7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5.2%는 '전공과 관련한 직무에만 지원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나머지 54.8%는 '비전공 직무에도 지원해왔다'고 답했다.

전공 계열별 비전공 직무에 지원한다는 응답은 인문계열

(71.4%)에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42.1%)은 가장 적었다. 또 경력직(47.4%)보다 신입직(61.9%)이 전공을 불문하고 지원하는 경향이 컸다.

전공과 다른 직무에 지원한 이유로는 '전공 관련 일자리가 없기 때문'(51.3%)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답변을 한 비율은 인문계열이 6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계열(59.0%), 자연계열(56.5%), 교육계열(50.0%), 상경계열(42.6%), 공학계열(41.3%) 순이었다.

경력직의 경우 '전공 비관련 직무

로 경력을 쌓게 되서'(16.0%), '전공이 본인의 적성과 안 맞아서'(91.3%), '연봉과 같은 근로조건이 전공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14.2%) 등을 비전공 직무 지원 이유로 들었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전공에 따른 직무수요에 큰 격차 없이 우선적으로는 일자리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만 최근 직무역량이 중요해진 만큼 지원직무에서의 능력을 갖춘다면 타 전공이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큰 점을 기회로 삼아 합격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웅진씽크빅 '놀이의 발견' 회원 40만명 돌파 '흥행'

웅진씽크빅은 '놀이의 발견'이 구글플레이스토어 육아 어플리케이션 분야 1위를 달성하며, 국내 회원 수 4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웅진씽크빅이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론칭한 '놀이의 발견'은 아이들이 즐겁게 몰입하며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한 자리에 모아 예약, 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이다.

'놀이의 발견'은 구글플레이 선정 2019년을 빛낸 숨은 보석 앱을 수상의 영예와 함께, 평점 4.7점을 기록하며 '출산?육아 앱 부문 선두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 누적 회원 수 역시 지난해 7월 20만명을 넘어선 이후 5개월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한용수 기자

화진포 개별 등기 분양!

서울에서 2시간 40분 거리



- 1년 365일 사용 가능
- 오션뷰 선착순 10명
- 법인 사원 휴양소 이용
- 개별 등기 가능

24시간 상담
02) 541-0113

제주 별장 개별 등기 분양



- 1억 천만원
- 선착순 5명

블라벤고원 투어 (1,300m)

라오스 남부휴양지 패키지 5일 129만원

대한항공 전세기, 2020년 2/1, 4일 출발



포함: 왕복 항공,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그린피, 카트, 캐디

필리핀 바기오 파인우드 9일 149만원

해발 1,500m고원 휴양도시, 평균기온 13-23°C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카트, 여행자보험

마닐라따가이파이 5일 10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카트, 여행자보험

중국 광저우 3박 4일 10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카트, 캐디, 여행자보험

1일 골프 특가

태국	차츄사오	썬라이즈 CC	80,000원
		스카이벨리 CC	70,000원
		카오차눅 CC	85,000원
		롭부리 CC	75,000원
필리핀	클락	파인우드 CC	100,000원
		베버리힐스 CC	100,000원
	세부	뉴아시아 CC	100,000원
		메르세데스 CC	70,000원
		인터내셔널 CC	70,000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겐팅아와나 CC	130,000원
		오나 CC	95,000원
		킨나라 CC	100,000원
		하바드 CC	80,000원
		몬테레즈 CC	90,000원

말레이시아 겐팅아와나 7일 14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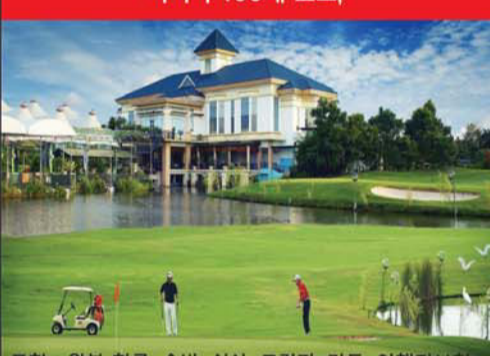
해발 1,100m 사계절 시원한 고지대



7박 9일 16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카트, 캐디, 여행자보험

브루나이 이스트우드 9일 169만원

아시아 100대 코스,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카트, 여행자보험

마카오 골프 3박 4일 109만원

비자비 면제 / 간소한 비자 / 5성급 호텔



포함: 왕복 항공, 여행자보험, 미팅/샌딩, 호텔(2인1실), 조식, 석식, 그린피, 18홀(카트, 캐디, 라커)

치앙라이 7박 9일 19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여행자보험

치앙마이 5일 119만원 / 파타야 5일 11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여행자보험

방콕 명문 5일 13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여행자보험

오키나와 골프 4일 149만원 / 미야자키 4일 10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카트, 여행자보험

사이판 3박 4일 129만원~

포함: 왕복항공, 숙박(2인1실), 미팅/샌딩, 식사, 면비비자(사전비자), 그린피/캐디피/전동카트, 여행자보험

괌 3박 4일 12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여행자보험

하노이 하롱베이 5일 11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카트, 캐디, 여행자보험

나트랑 3박 5일 12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식, 그린피, 카트, 캐디, 여행자보험

호치민 3박 5일 13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여행자보험

달랏 3박 5일 15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카트, 캐디, 여행자보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5일 129만원


자카르타 시내 15분 거리, 로얄 자카르타CC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여행자보험

말레이시아 글렌메리 5일 139만원

최고급 골프장과 5성급 호텔 숙박



대만 가오슝 3색 골프 4일 139만원

포함: 왕복 항공, 숙박, 조/석식, 그린피, 여행자보험

하이난 럭셔리 골프 5일 109만원

포함: 왕복항공, 숙박(2인1실), 미팅/샌딩, 식사, 면비비자(사전비자), 그린피/캐디피/전동카트, 여행자보험

말레이시아 9일 145만원 (몬테레즈CC)

왕복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카트, 여행자보험



ILtour 골프전문여행사 아이엘투어 **02-541-4242**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1 751빌딩 717호 | 카카오톡 상담 가능: @golfcondo | 홈페이지: http://www.iltour.co.kr | E-mail: golfcondo@naver.com

사우나, 가정에서 즐긴다!

캐나다산 적삼목으로 만든 핀란드 수송용 국내 출시



전원주택, 아파트 거실, 기숙사, 연수원, 마을회관, 헬스클럽, 펜션

SALE

5-6인용 2인용 275만원

원적외선 사우나
캐나다산 적삼목 원적외선효과 자동온도조절 인체공학적인설계

세포재생 및 혈액순환 향상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체중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24시간 상담 가능
리치하우징 문의: 1544-6299

용인 전원 택지 반값!



- ☑ 선착순 3명 3.3㎡ 94만원
- ☑ 상하수도공사, 토목공사완비
- ☑ 즉시건축가능
- ☑ 정남향 16세대 단지, 계획관리지역
- ☑ 강남 1시간, 덕평 IC 7km

24시간 상담 031-282-8851

용인 기흥 타운 하우스

- 30평형 3억 8천 5백만원
- 즉시 입주 가능!



- ☐ 고급 타운하우스
- ☐ 기흥 IC 5분
- ☐ 삼성반도체 5분
- ☐ 롯데 명품 아울렛 5분
- ☐ 이케아 매장 오픈
- ☐ 서울 강남 40분 거리
- ☐ 골드/코리아 CC 입구

선착순 5명

로렌스빌 타운하우스 24시간 상담 031-282-8851

기생충, 아카데미상 6개부문 후보 올랐다

감독·각본·편집·미술·국제영화상 등

한국 영화 아카데미상(오스카) 작품작 '기생충'이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각본·편집·미술·국제영화상 등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101년의 한국 영화 역사상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최초의 기록이다. 지난해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국제영화상(당시 외국어영화상) 예비후보에 오른 적은 있지만, 오스카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기생

충'이 처음이다.

한국 영화계는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이후로 아카데미 국제영화상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해왔으나 최종 후보에는 한 차례도 오르지 못했다.

'기생충'이 오스카 수상에 성공하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골든글로브 수상에 이어 유럽과 북미에서 최고 권위의 영화상을 모두 휩쓰는 금자탑을 쌓게 된다.

/신선선 기자 tree6834@



현대ENG 신입사원, 쪽방 연탄배달 봉사

14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2020년

도 신입사원 49명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 쪽방을 방문하고 연탄 3000장을 기증했다. 이날 신입사원들은 연탄배달 봉사활동 이외에도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 '새희망학교', '굿윌스토어 물품기증' 등 현대엔지니어링이 진행 중인 국내외 대표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현대엔지니어링



동국제강, 인천 등 지역주민 생활지원 나서

동국제강이 설 명절을 앞두고 산하 송원

문화재단과 함께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에 나섰다. 동국제강은 14일 인천공장으로 송현동, 화수동 일대 지역 주민 80명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고 생활지원금과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최상영 동국제강 인천 공장장(오른쪽 두번째)과 이찬희 이사(오른쪽 첫번째)가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제강

롯데하이마트 중소파트너사에 상품대금 조기지급

대금 305억 전액현금으로 지급

롯데하이마트가 설을 앞두고 총 775개 중소 파트너사에 상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

롯데하이마트는 중소파트너사에 총 305억원의 상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 지난 9일에는 257억원

의 상품 대금을 1차로 중소파트너사에 조기 지급했다

14일에는 남은 48억원의 상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상여금, 임금 등 자금소요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당초 예정됐던 지급일보다 최대 45일 앞당긴 것이다.

/신선선 기자

농심 주부모니터·핀스터즈 모집

농심이 28기 주부모니터와 13기 대학생 핀스터즈(Funsters)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심 주부모니터는 주부들이 농심 제품과 관련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을 제안하는 소비자패널이고, 대학생 핀스터즈는 소비자 그리고 농심 마케터와 즐겁게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다.

모집은 1월 24일까지 농심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박민웅 기자 parkiu7854@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권태성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데일리한국 △부사장 겸 편집국장 광태현 △부국장 겸 금융부장 최영은 △부국장 겸 산업부장 최인웅 △정기경제부장 이정우 △정치팀장 안병용 유통팀장 정은미 △금융팀장 이윤희 ◇주간한국 △부사장 겸 편집국장 윤구현 ◇한국아이닷컴 △부사장 김창환

◆**신영그룹** ◇(주)신영 △개발사업본부 전무 손종구 △재경본부 전무 최광철 ◇(주)신영에셋·(주)신영자산관리 △대표 이병희

◆**코트라** ◇상임이사 보임 △무역기반본부장 류재원

◆**주택금융공사** ◇지역 본부장 전보 △수도권본부 권오훈 △서남권 김찬년 ◇부장 전보 △정책모기지부 이철우 △유동화증권부 김남혁 △신탁자산부 김석준 △정책모기지서비스센터 박광길 △사업자보증부법성 △ICT전략부 김병석 △ICT운영부 강재연 △ICT개발추진단 임태환 △주택금융연구원 조사연구실 류수복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지원실 서원준 ◇지사장 전보 △서울중부 이영태 △서울남부 김진구 △서울서부 한명호 △서울동부 김윤수 △대구 서정훈 △광주 임대근 △경기남부 허승 △강

원서부 오택균 △충북 이관재 △충남 강희수 △전북 손진국 △경북 황재훈 △경남 동부 김정기 △제주 오주환

부음

▲남기자 씨 별세, 조운용 씨 부인상, 조찬제(경향신문 선임기자)·영이(전 영주농협 상무)·명희(고양 성사초등학교 교사)·상이(대전 서부초등학교 교사) 씨 모친상, 서정걸(전 영주시 안정면 부면장) 씨 장모상 = 14일 오전 10시 17분, 영주 자민병원, 발인 16일 오전 8시, ▲한준수(전 연기군수)씨 별세, 한상혁(방

해 공진단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진단을 구매할 때에는 식약처로부터 수입인증을 받은 사향을 사용했는지, 식품용 녹용이 아닌 의약품용 녹용을 사용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잠을 자도 피곤하거나 무기력증, 만성피로, 성욕감퇴, 체력저하,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보약을 찾는다면 경옥고가 좋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이 약을 다섯 제로 나누면 반신불수 환자 다섯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열 제로 나누면 노쇠 환자 열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우수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경옥고는 1회의 '고(高)'를 만드는데 상당 분량의 약재가 들고 만드는데 과정도 까다로우며 어느 보약보다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특히 기와 혈을 고루게 보충시켜 주기 때문에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용 가능하며, 출산 후 산후관리가 필요한 산모(수유 중 복용가능)나 성장촉진이 필요한 청소년,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노년층에게 가장 적합하다. 단, 공진단과 경옥고는 의약품이므로 반드시 전문한의사에게 처방받아 복용해야 제대로 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공진단과 경옥고의 효능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설 명절 선물'하면 육류나 수산물, 과일이나 주류였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일지라도 받는 사람의 체질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홍삼은 열(熱)이 많은 약제로 몸이 찬 소음인(少陰人)에게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소양인(少陽人)이나 태양인(太陽人)은 오히려 열을 상승시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소양인이나 태양인, 태음인이 홍삼을 복용했을 시 혈압상승, 상열감, 체중증가,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큰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중병을 앓은 경험이 있다면 하루 복용량을 10~20g 이내로 조절해야 하며, 카페인

나 혈압약, 여성호르몬제 등과 같이 복용하면 약효가 너무 강해져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복용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면 병중병후나 원기회복, 체력보강, 기혈보충, 면역력향상에 도움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찾는다면 '공진단(拱辰丹)'이 가장 적합하다. 예로부터 황실에 바쳐졌던 처방이라 하여 '황제의 보약'이라 불리는 공진단은 많은 의가들에게 약효를 인정받은 한방 3대 명약 중 하나다. 동의보감에서는 '체질이 선천적으로 허약하다면 이 약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원기를 든든히 해 신수를 내리게 하므로 백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나다.

공진단의 주원료인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시켜 얻은 약제로 강심작용을 하고, 막힌 기혈을 뚫어줘 약의 효능이 전신으로 강하게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 공진단이 고가인 이유도 바로 이 '사향' 때문인데, 사향은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약처의 수입인증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멸종위기의 동물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 쉽게 구하기 어렵고, 워낙 고가이다 보니 사향 대신 목향이나 참향을 첨가

신한금융, 서울 중구와 '동네 나눔밥집' 맞손

취약계층 식 문제해결 사업추진 사회적가치 창출 분석·확대 예정

신한금융그룹은 14일 서울 중구청사에서 중구청과 취약계층 '식(食)' 문제 해결을 위한 '동네 나눔밥집' 사업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동네 나눔밥집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식사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쿠폰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동네 나눔밥집으로 지정해 쿠폰을 사용하게 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돕는 상생 프로젝트다.

신한금융은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동네 나눔밥집 사업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측정하고 분석해 수혜 계층 및 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신한금융 이



신한금융그룹은 14일 서울 중구청사에서 중구청과 취약계층 '식(食)' 문제 해결을 위한 '동네 나눔밥집' 사업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한금융지주 이병철 부문장(왼쪽)과 서양호 중구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병철 부문장은 "동네 나눔밥집 사업은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 창출 생태계를 구성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계

획"이라며 "신한금융은 지역사회가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송동신위원장)씨 부친상 = 14일 정오, 대전 유성선병원 장례식장 VIP 5호실, 발인 16일, 장지 마석 모란공원

▲순규식 씨 별세, 손재경(전 경남교육청 행정국장) 씨 부친상 = 13일, 경남 창원시 삼성창원병원 장례식장 VIP 1실, 발인 15일 오전 7시 30분.

▲김민숙씨 별세, 오연근(경인일보 동두천·연천 주재 부장)씨 장모상 = 13일 오후 9시 31분, 안양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박희성씨 별세, 박성용(코레일 검측팀 과장)씨 부친상 = 13일 낮 12시,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유통업계, 자극 줄이고 유해성분 없앤 '클린뷰티' 주목

에티카 '에어웨이 코튼 베이직' 로하스 인증, 순면 100% 안감사용

몽디스 유아세제 '코코글루사이드' 찬물에도 분해 세제 잔류물 최소화

한세드림 유아동복 '컬리수' 유칼립투스 추출물 활용 이너웨어



몽디스



에티카 에어웨이 코튼 베이직

/에티카

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키즈 친환경 이너웨어 세트'는 유칼립투스 추출물로 만든 텐셀 소재를 활용했다. 텐셀은 수분 함유량과 흡수성이 뛰어나며, 매끄러운 섬유구조로 민감한 아기 피부에도 부드러운 소재다. 함께 선보인 '마이크로모달 솔리드 세트' 또한 너도밤나무 펄프를 통해 만든 모달 소재를 활용해, 착용감과 내구성이 우수하며 활동적인 아이들에게 적합하다.

최근 피부 유해 성분을 배제하고, 환경 유해 요소까지 고려하는 '클린뷰티', '필환경' 트렌드가 떠오르며 저자극, 친환경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더욱이 형광증백제, 계면활성제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뷰티, 생활용품 속 화학 성분의 유해성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면서 유통업계 또한 무해성 인증을 거친 제품 및 천연 원료 활용, 친환경 가공법 등을 내세운 저자극 용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미세먼지 위협이 겨울에도 지속되면서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가 됐다. 마스크는 호흡기 및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인 만큼 원료와 가공 과정 등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제품이다.

패션 미세먼지 마스크 브랜드 '에티카'는 KF94 미세먼지 마스크 '에어웨이 코튼 베이직'을 선보였다. 특히 이 제품은 로하스(LOHAS) 인증을 받은 순면 100% 안감을 사용해 피부에 닿는 부위의 자극을 대폭 줄였다.

또한 초미세먼지를 94% 이상 차단할 뿐 아니라 100% 순면 원단의 특성상 합성 섬유 대비 섬유 단면이 둥근 형태를 띠고 있어 촉감이 부드럽고 피부 자극을 줄여준다. 더욱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의 섬유제품 품질 인증 시험인 '오코텍스(OEKO-TEX)' 1등급 인증을 통해 피부자극·알레르기·발암 물질 등 200가지 이상의 유해 성분 대해 무해성을 입증 받았다.

오코텍스는 섬유 원료부터 제품의 중간 단계, 그리고 최종 완제품 등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유해 성분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무해성 정도를 평가하는 인증으로, 1등급은 통상 유아용 제품에 부여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에티카 코튼 베이직은 미드나잇 블랙, 듀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천연 원료를 활용해 자극을 줄이고, 잔류 화학성분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높인 제품들도 있다. 세탁, 세정 제품의 경우 남아있는 화학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줘, 유아 아토피나 좁쌀 여드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자연유래성분으로 만드는 아기화장품 브랜드 몽디스 유아세제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합

성 계면활성제 대신 코코넛에서 유래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코코글루사이드'를 사용해 피부 자극을 줄였다.

코코글루사이드는 뛰어난 세척력과 헹굼력뿐 아니라 일반 세제와 달리 찬물에도 분해되는 성분으로 세제 잔류물을 최소화해 피부가 민감한 영유아용 제품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유아동복 기업 한세드림이 운영하는 브랜드 컬리수는 피부가 민감한 영유아를 위해 부드러운 천연 소재의 이너웨어 '키즈 친환경 이너웨어 세트'와 '마이크로모달 솔리드 세트'를 선보였다.

컬리수의 키즈 친환경 이너웨어 세트 및 마이크로 모달 솔리드 세트는 부드럽고 가벼운 천연 소재를 활용해 어린

그밖에도 생리대 브랜드 '해피문데이'는 가공 과정에서 친환경 방식을 사용해 환경 유해 요소 및 유해 성분에 대한 걱정을 줄였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목화로 제작한 유기농 생리대 브랜드 해피문데이는 농약, 제초제, GMO, 목화, 향료, 염소표백,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납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100% 유기농 순면을 적용한 탐시트를 사용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다.

특히 농장 관리부터 유기농 순면 부직포 제작, 완제품 보관 및 유통까지 생리대 탐시트 생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유기농 인증을 완료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oul.co.kr

QR코드로 입장, 상품 들고 나오면 '자동결제'

GS25, 계산대 없는 미래형 편의점 오픈

BC카드·스마트로와 맞손

딤러닝 스마트카메라 등 테스트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점포 구현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해 입장하고 상품을 들고 나오면 자동 결제되는 편의점이 오픈했다.

GS25가 BC카드, 스마트로와 손잡고 BC카드 본사에 미래형 편의점인 GS25을지스마트점(이하 미래형GS25)을 14일에 오픈했다.

GS25는 지난 2018년 9월 업계 최초로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과 스마트스캐너가 적용된 무인형 스마트GS25를 강서구 마곡동에 선보이며 디지털 유통 기술 발전을 선도해왔다. GS25는 이번에 선보인 미래형GS25가 계산대까지 없이 운영돼 한층 진일보된 2세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혁신을 통한 변화) 점포로 구현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래형GS25에서는 ▲QR코드를 통한 개인식별 ▲고객 행동 딤러닝 스마트 카메라 ▲재고 파악을 위한 무게 감지 센서 ▲영상 인식 스피커를 통한 고객 인사 ▲AI가 활용된 결제 등의 미래형 디지털 유통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테스트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래형GS25는 8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BC페이북(BC카드의 모바일 결제 앱)의 기술이 사용돼 넓은 확장성도 확보했다. 고객은 BC페이북의 QR코드를 스핀드게이트(미래형GS25의 출입문)에 접촉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고객이 점포에 들어가면 34대의 딤러닝 스마트



미래형 GS25에서 이용객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GS리테일

카메라가 고객 행동을 인식한다. 매대별로 장착된 총 300여개의 무게 감지 센서는 고객이 어떤 물건을 얼마큼 고르는지를 감지해 딤러닝 스마트 카메라와 함께 고객의 소비 행동을 학습하고 규명한다. 물건을 고르고 스피드 게이트를 빠져나오면 AI기술이 적용된 결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결제해 고객에게 모바일 영수증을 제공한다. 구매 과정과 관련한 첨단 기술 외에도 친절 서비스를 위한 영상 인식 스피커 운영 기술도 선보인다. 영상 인식 스피커는 카메라를 통해 고객이 특정 장소에 있거나 특정 행동을 할 때 미리 정해 놓은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해 안내되는 장비다. 미래형GS25에서는 이를 활용한 고객 맞이 인사 등이 안내된다. 향후에는 고객이 매대 앞에서 특정 PB상품을 고를 때, 현명한 선택임을 안내하거나 증정 상품 매대에 접근 시 행사 상품을 안내하는

등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기술들도 점차 선보일 예정이다.

GS25는 이를 통해 미래형 디지털 유통 기술을 더 완벽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래형GS25를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GS25는 집중 시설물 내 무인 점포의 확산 전개, 운영 효율화가 필요한 위성 점포 운영, 야간 미영업 점포 운영 등 특수 점포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S25 관계자는 "각 산업 영역에서 AI와 딤러닝 학습 기술 등이 활용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며 "미래형GS25 운영을 통해 단순히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가맹점 경영주에게는 운영 편의와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보급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디지털 쇼핑 경험을 선물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풀무원, 실속·가심비 충족 설 선물 '풍성'

선물세트·대표제품 할인 기획전

풀무원은 오는 23일까지 경자년 설 명절을 맞아 공식 온라인 쇼핑몰 '풀무원샵'에서 설 선물세트 및 대표 제품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14일 밝혔다.

풀무원샵은 최근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실속과 가심비를 충족시켜 줄 선물세트와 명절 상차림에 활용도가 높은 제품을 다양하게 구성해 최대 51% 할인, 합리적 가격에 선보였다.

먼저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제품만을 엄선해 '명절 선물 BEST'를 건강기능식품을 준비했다. 대표 품목으로 여성건강기능식품 '풀무원로하스 로젠

빈'과 간편한 스틱형 홍삼 '폴스케어 플러스업 홍삼정 스틱 선물세트(10mlX30포)'를 마련했다. 특히 '폴스케어 플러스업 홍삼정 스틱'은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판매하는 제품으로 25% 특별 할인한 선물세트로 준비했다. 폴스케어 플러스업 홍삼정 스틱은 300여가지 유해물질 검사를 완료한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인삼만 사용했고, 총명탕 원료로 알려진 원지, 석창포, 백복령을 함께 담아 설 선물로 제격이다.

가심비를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실속 도시락김세트'와 '국산콩 생나또' 등은 각각 15%와 25% 할인 판매한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

"8개 코너서 각기다른 전문요리 맛보세요"

CJ푸드빌, 계절밥상 특화매장 오픈

CJ푸드빌이 운영하는 계절밥상이 특화 매장을 확산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절밥상은 용산 아이파크몰점과 서 울역사점에 '라이브스튜디오8'을 도입해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한식 셀렉 다이닝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라이브스튜디오8'은 각기 다른 8가지 코너에서 코너 별 전문성과 즉석 조리 서비스를 강화한 콘셉트다. 통으로 구워 깊은 풍미의 육류를 제공하는 '서울통구이', 해산물 전문 '진미수산', 즉석 국수를 선보이는 '바로면방', 전과 튀김 안주 코너 '일품주막'이 있다. 다양한 찬과 밥이 제공되는 '소담찬방', 계절밥상 인기 메뉴를 모은 '제철부두



막', 트렌디한 한식 메뉴를 선보이는 '이색 별미당'과 디저트 전문 '오색 다과점'도 포함된다.

'라이브스튜디오8' 콘셉트는 2018년 12월 계절밥상 여의도IFC점에 우선 도입했다. 당시 재오픈 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15% 증가했으며, 점심에는 보통 1시간을 대기해야 할 정도로 IFC몰 내 인기 맛집으로 부상했다. 새로운 콘셉트는 1년동안 운영하며 반응이 좋은 코너와 메뉴를 집중 업그레이드 해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박민용 기자

“반려견치매 임상3상 효과 확인”

지엔티파마

‘크리스데살라진’ 임상3상 완료
투약 관련 부작용도 발견 안돼
“사람 치매환자 연구도 계획 중”



지엔티파마가 반려견 치매(인지기능저하 증후군) 치료제로 개발 중인 ‘크리스데살라진’ 임상 3상 시험을 완료했다.

지엔티파마는 반려견 치매(인지기능저하 증후군) 치료제 ‘크리스데살라진’의 임상 3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임상 3상은 중증 인지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48마리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1년에 걸쳐 진행됐다. 크리스데살라진의 임상 3상 연구에는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내과, 대구 동물메디컬 센터, 부산 제12차 동물메디컬센터, 해마루 동물병원, 헬릭스 동물메디컬센터, N동물의료센터, VIP 동물의료센터에서 참여했다.

연구 결과 크리스데살라진 투여군은 일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반려견 인지 기능장애 지수 (CCDR)’와 이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반려견 치매 지수 (CADES)’에서 플라시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약효가 입증됐다. 탁월한 인지 기능개선 약효는 5 mg/kg 또는 10 mg/kg 크리스데살라진을 투여한 반려견에서 투약개시 4주와 8주에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크리스데살라진의 투약과 관련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월드아틀라스에 따르면 2012년 전세계 반려견의 수는 5.25억 마리였고, 현재는 9억 마리로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스 연구팀은 11~12세 반

려견의 28%, 15~16세 반려견의 68%에서 인지기능장애가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최근 수의학과 헬스케어의 발달로 반려견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반려견 치매 유병률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적절한 반려견 치매 치료가 없어서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크리스데살라진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치매 치료 신약물질로, 알츠하이머 치매와 반려견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타우 단백질 침착, 뇌신경세포 사멸을 막기 위해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안전한 소염 작용을 동시에 보유하도록 발굴된 다중표적 약물이다. 지엔티파마 연구진은 크리스데살라진이 치매 쥐 모델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뇌신경세포의 사멸을 줄이고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반려견 치매 임상 3상 연구에서 크리스데살라진의 안전성과 인지기능개선 약효 연구결과를 포함해서 지엔티파마는 반려동물 치매 치료제와 제형에 대한 특허협력조약(PCT)에 국제특허출원서를 제출했다.

지엔티파마 대표이사이며 크리스데살라진의 개발자인 광병주 박사는 “중증 치매견에서 투여한지 4주 만에 크리스데살라진의 약효가 확연히 나타났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 대한 임상 2상 연구는 2~3년이면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식약처에 크리스데살라진의 알츠하이머 치매 임상연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종장기이식 제넨바이오 제넥신으로 최대주주 변경

지분율 8.13%... 플랫폼 체계화

이종이식 전문기업 제넨바이오는 최대주주가 제넥신으로 변경됐다고 14일 밝혔다.

제넥신이 보유한 제넨바이오 전환사채(CB)가 13일 전환됨에 따라, 최대주주가 제넥신으로 변경됐다. 이번 전환 청구로 제넥신은 제넨바이오 지분의 8.13%를 보유하게 되며, 현재 보유 중인 전환사채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최대 11.83%까지 확보하게 된다.

제넥신은 면역치료제 및 항체융합단백질 개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신약 개발 전문기업으로, 제넨바이오가 바이오업계에 진출해 이종장기 개발사업의 기초를 닦는 과정에서 큰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8년 경동제약과 함께 제넨바이어를 바이오업체로 전환하는데 협력한 것을 시작으로,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을 역임한 권위자인 김성주 교수가 제넨바이오 대표로

합류해 이종장기 개발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에도 일조했다. 제넥신은 2018년 케이클라비스마이스터 신기술조합이 200억 원의 제넨바이오 CB를 인수할 당시 약 1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원천기술도 이전했다. 제넥신은 지난 7일 hyFc 관련 기술 2건을 제넨바이오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제넥신은 단일융합 면역억제제인 GX-P1과 차세대 이중융합 면역억제제인 ‘BSF-110’에 대해, 장기이식 분야에서 해당 물질을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제넨바이오에 이전했다. 제넥신은 최대주주로 제넨바이오의 이종이식 플랫폼을 더욱 체계화할 계획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전세계 면역억제제 시장이 2026년까지 약 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넨바이오는 이번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통해 장기이식 분야의 미충족 수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방송 전 인기상품 미리주문 하세요”

롯데홈쇼핑, ‘쇼핑하는 42’ 론칭

롯데홈쇼핑은 모바일을 통한 미리주문이 많은 인기 상품만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특화 프로그램 ‘쇼핑하는 42’를 론칭했다.

생방송을 기다려 구매하기 보다는 필요한 상품을 모바일로 검색, 미리 주문하는 등 홈쇼핑 이용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생방송 전 미리 주문율이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리 주문이 많은 상품을 분석하고, 시의성, 타깃 고객 등을 고려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신속하게 선보이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통상적으로 1시간 동안 1개 상품을 판매하는 기존 홈쇼핑 방송 형식에서 벗어나 2시간 동안 3개 이상의 상품을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외에도 한 프로그램당 스튜디오 한 곳에서 방송했던 것과 달리 상

품별로 콘셉트에 맞게 여러 개의 스튜디오를 동시에 활용해 생동감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120분 방송을 분할해 40분씩 연이은 편성으로 보다 많은 파트너사들에게 접점 기회를 제공하고, 60분 편성 방송에 대한 재고부담 등 어려움이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쇼핑하는 42’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0분부터 120분 간 진행된다. 미리 주문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상품을 각각 40분씩 연이어서 편성한다. 지난 8일(수) 론칭 방송에서는 미세먼지 이슈로 의류 관리 가전들에 대한 검색율, 미리 주문율이 높아 ‘의류 관리기’, ‘건조기’ 등을 편성해 목표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 2회 차로 진행되는 이달 15일(수)에는 설날을 앞두고 설 선물, HMR 등에 대한 미리 주문율이 높아 호주 직수입 별집꿀 ‘베링가 허니콤’, 개그우먼 뽕현 숙씨가 운영하는 ‘뽕현숙의 옛날 순대국’ 등을 선보인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대웅제약, AI 활용 항암신약 개발 돌입

美 A2A 파마와 공동연구 맞춘

대웅제약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바이오기업 A2A 파마와 항암 신약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A2A는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신약 설계 플랫폼인 ‘SCULPT’를 활용하여 신규 화합물을 설계하고, 대웅제약은 이 구조를 기반으로 물질 합성 및 평가를 수행하여 항암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A2A의 SCULPT는 자체 개발 기술을 통해 암을 유발하는 표적의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표적에 적합한 수억개의 독창적인 물질을 설계하여 표적 기

반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또 그 물질의 결합력 및 약물성을 인공지능 학습으로 예측함으로써 표적에 최적화된 물질을 선별해 낼 수 있는 약물 발굴 플랫폼이다. 통상적인 합성 신약 탐색 방법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표적에 대해서도 우수한 물질을 설계할 수 있는 고도의 정밀한 기술력이 반영되어 있으며, 표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기존 인공지능만을 이용하여 신규 화합물을 도출하기 어려운 표적에도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SCULPT의 우수성은 이미 A2A가 자체 보유한 항암 및 난치성 질환 파이프라인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대웅제약은 SCULPT를 통해 최적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왼쪽)과 소티리오스 테지오폴로 A2A 파마 사장이 12일 항암 신약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 항암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함으로써, 항암제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항암 분야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22일 뇌졸중 건강강좌

이대서울병원은 오는 1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지하 2층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환우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뇌졸중’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뇌졸중을 피할 수 있는 건강한 뇌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우호걸 교수가 강사로 나서 뇌졸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며, 무료로 진행된다. /이세경 기자

위메프, EDM 축제 ‘월드페 티켓’ 단독 판매

메프가 국내 대표 EDM 페스티벌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2020 (이하 월드페)’ 티켓을 14일 낮 12시부터 단독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월드페’는 1주차(5월 30~31일), 2주차(6월 6~7일) 두 기간에 걸쳐 서울랜드에서 개최된다. 티켓 가격은 블라인드 티켓 ▲2주 모두 놀자!(4일권) 19만 8000원 ▲1주 선택해서 놀자!(2일권) 9만 9000원이다.

위메프에서 단독 판매하는 블라인드 티켓은 출연 라인업 공개 이전에 한정수량으로 최저가에 판매되는 티켓이다.

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월드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EDM 페스티벌이다. 현재까지 국내 실력파 DJ는 물론 오데자, 어보브 앤 비온드, 저스티스, 아비치 등 EDM씬의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 라인업을 선보이며 EDM 매니아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다. /신원성 기자

올해부터 수혈·우울증 외래도 적정성 평가

심평원 올 35개 의료항목 평가

올해부터 수혈과 외래 우울증 진료에 대해서도 의료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학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수혈, 우울증 평가를 새롭게 추가해 총 35개 의료항목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수혈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혈액 사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국내 슬관절치환술 수혈률이 78%로 미국 8%, 영국 8%, 호주 14%에 비해 크게 높은 점을 고려해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 적정성을 평가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울증 외래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올해 시작된다. 2016년 기준 우울증 환자의 95%는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그간 정신건강 진료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돼 있었다.

영상검사와 내시경검사에서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비평가도 도입한다. /이세경 기자

우리금융, 이웃사랑 성금 30억원 기탁

손태승 “지속적 나눔 활동 동참할 것”

우리금융그룹은 이웃돕기 성금 3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우리금융그룹 임직원들은 이웃사랑 성금 3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우리금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금을 2017년 10억원, 2018년 20억원에 이어 2019년에는 30억원으로 늘리는 등 매년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늘리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나눔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억원을 기탁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이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이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한화그룹, 카이스트와 미래 과학 인재육성

한화그룹은 미래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 카이스트(KAIST)와 함께 겨울방학 캠프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지역 중학생 50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진행됐다. 겨울 과학 캠프는 과학기술에 관심과 재능을 가진 과학영재 학생들을 발굴하고 우수 이공계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화-카이스트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직접 과학체험을 함으로써 학생들에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며 논리적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학생들은 카이스트 학생들로 구성된 멘토들과 함께 교과 중심의 학습에서 벗어나 최신 과학기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카이스트 기숙사에서 함께 숙식을 하며 대학생 선배들에게 학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했다.

2016년부터 진행된 '한화-KAIST 인재



한화그룹과 카이스트가 진행한 겨울 과학캠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화그룹

양성 프로그램'은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술공학, 수학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융합과학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CES서 빛난 韓 스타트업



기자 수첩

배한님 (산업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 한국 스타트업이 대거 참가했다. CES를 주최한 CTA(미국소비자기술협회)에 따르면 CES 2020에 참석한 한국 스타트업은 179개사로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였다. 1200여 개의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유레카관 곳곳에 한국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뽐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CES 유레카파크에 한국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장을 좀 보태면 아는 분을 만나고 몇 십미터 걷기가 어려울 지경”이라는 글을 남겼다. 매년 한국 CES에 참가하는 한국 스타트업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CES에 참가한 한국 스타트업은 매년 팔복상대할 만하다. 특히 올해는 팜테크 스타트업 '엔생'은 IoT를 적용한 작물 재배 컨테이너 플랜트 큐브로 스마트시티 부문 최고 혁신상을 거머쥐며 전세계인의 이목을 끌

었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에서 글로벌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교통 트래픽 레이더를 만드는 '비트센싱'도 24GHz 레이더 센서로 혁신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엑소시스템즈, 아이콘AI 등이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혁신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발전하는 기술로 CES에 참가하는 스타트업도 많다.

SOS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층 더 진화된 '라이드'로 CES에 참석했다. SOS랩의 라이드는 레이저 거리측정기술로 자율주행차의 이미지센서로 활용된다.

한국 최대 스타트업 엑스포인 'ComeUp'에서 휘어지는 배터리로 주목받은 '리베스트'도 참석했다. 베어로보틱스, 휴이노, 뉴로핏, 피웁스, 포트투마루 등 많은 스타트업이 올해 라스베이거스 땅을 밟았다. 이들이 아직 1년이나 남은 내년 CES를 기다리게 하는 이유다.

오는 2021년 CES에는 좀 더 많은 스타트업이 성장해 CES에 참가해 기술력을 자랑하고 오길 바란다.

ericabae1683@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5일 (음 12월 21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양띠의 도움을 받겠다. 48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 60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것이 없다. 72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노력하자. 84년생 성공은 모든 잡음을 없앤다.

소 37년생 하나를 투자하고 열을 얻는 날. 49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자. 61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73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85년생 진심으로 대하면 보답이 크다.

호랑이 38년생 날씨가 흐리니 외출을 삼가라. 50년생 신세 졌던 사람이 빛을 갠다. 62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74년생 힘든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 86년생 자신의 약점은 공부로 극복하라.

토끼 39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준비. 51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은 좋으나 손재수도 있다. 63년생 물 건너서 소식이나 근심을 추가한다. 75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 87년생 결실이 적어도 후회는 없다.

뱀 40년생 나이 탓하지 말고 희망을 품고 재도전하자. 52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 64년생 실수 연발도 하루하루 인생이다. 76년생 고칠 곳을 발견하면 당장 고쳐라. 88년생 평온한 바다에서 대어를 낚는다.

말 41년생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 조바심이 난다. 53년생 정든 사람과 이별하는 수가 있다. 65년생 밖은 전쟁터이니 이직은 신중하게. 77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함을 명심. 8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행동을 조심.

말 42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54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 66년생 농친 고기를 아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78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90년생 과속운전은 주의하자.

양 43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55년생 모두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67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79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91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다.

원숭이 44년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56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도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68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80년생 쥐띠가 찾아오니 귀인이다. 92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닭 45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57년생 고랑 치고 가재 잡는 날. 69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81년생 썩지 않으려면 고인 물은 흘러보내라. 93년생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을 찾는다.

개 46년생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니 교만해지지 마라. 58년생 가슴이 답답한데 한잔 술이 위로를. 70년생 배우자 외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82년생 대결이 시작됐으니 최선을. 94년생 향기가 없어도 꽃이니까 아름답다.

돼지 47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도장은 내일 찍어라. 59년생 누구나 외로운 것은 미친가지. 71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을 명심. 83년생 일이 싫으니 변명만 보인다. 95년생 신념은 확신이 있어야 가능할 것.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8	
			6		1	9		
9		4	5					
	5			6		7		4
	8						2	
7		6		3			9	
					6	4		3
			7	1		3		
	1	8						

	2			6				4
3		6	7		4	1		2
4	5						9	3
7								8
				6		8		
6								1
2	6						1	9
5		3	9		6	8		4
	4			3				7

스도쿠 정답

6	2	9	5	8	7	1	3	4
2	8	5	6	1	2	9	7	3
1	7	9	8	3	4	5	6	2
8	6	1	5	2	9	7	3	8
9	3	4	1	6	5	8	7	2
7	1	2	9	8	6	5	4	3
1	9	8	7	5	2	4	6	3
5	7	6	1	3	9	2	8	7
2	4	3	7	9	8	5	1	6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희의四季

너무 눈치가 빨라도

“곰 같은 마누라보다 여우 같은 아내가 낫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지혜일 때도 적지 않다. 조직사회에서는 눈치가 빠르게 상사의 뜻을 잘 헤아려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지름길인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오히려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어제 언급한 계곡과 관련한 고사에 나오는 양수는 이러한 조조의 복심을 잘 읽어 주군의 뜻에 맞는 행동을 했음에도 오히려 죽음을 자초했다. 실제로 양수가 초나라와의 한중전투와 관련한 한 건으로만 죽임을 당했을까? 이미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조조의 마음을 읽어내었다. 앞서 행동하는 양수가 뛰어난 인재인 것은 알았으나 자신의 속마음을 계속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부담되었다.

한 번은 조조가 신하들에게 정원을 만들라고 했다. 정원이 다 만들어지자 조조는 대문에 활(活)만 쓰고 돌아갔다. 신하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여 당황할 때 양수는 말하길 “문(門)에 활(活)자를 썼으니 이는 넓다는 뜻의 활(濶)자가 아니겠소? 그러니 정원의 크기를 줄이라는 뜻이오”라고 했다.

이때만 해도 조조는 그놈 참 똑똑하다 했을 것이다. 그 후에 누군가 조조에게 낙(酪)이라는 술을 선물했는데 조조는 한 모금 마시고서는 병에 일합(一合)이라는 글자를 써 신하들에게 돌렸다. 신하들이 뜻을 몰라 멍하니 있자니 양수는 또 말하길, “일합(一合)을 풀면 일인일구(一人一口)이니 한 사람당 한 모금씩만 마시라는 뜻이겠지요.” 했다.

이렇게 조조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곤 했는데 그 후 중원 퇴군의 군사전략에 대한 속마음까지 읽어내자 조조는 불현듯 두려움을 느낀 것이다. 여기서 세상의 씩씩한 원칙을 발견하게 된다. 너무 앞서나가면 살(殺)이 많다는 것이다. 천재가 꽃이 피기도 전에 스러지는 이치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6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68호



경자년 설 선물 키워드는

#밀레니얼 #프리미엄 #1인가구

경자년 설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다.

국내 주요 백화점과 유통업체, 제약사들은 평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안성맞춤인 설 선물들을 선보이고 있다. 건강을 고려한 건강식품부터 차례상에 올릴 간편식 선물세트, 실용적이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생활용품 세트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백화점·마트업계는 2030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해 SNS에서 인기몰이중인 상품·브랜드와 협업한 이색 상품을 선보이려는가 하면, 자사 PB 상품을 프리미엄화한 상품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

표적인 예로 현대백화점은 ▲소보꼬 ▲부엉이 곳간 ▲살뿔 등 온라인상에서 핫할 7개 브랜드와 협업했다. 이마트는 백화점급 프리미엄 선물세트 '피코크 시그니처'를 앞세워 프리미엄 선물세트 시장 공략에 나선다. 2020년 설을 맞아 신상품 5종을 포함한 피코크 시그니처 선물세트 36종을 선보이는 것. 효율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대형마트에서 프리미엄급 선물세트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와인 선물세트도 인기다. 주요 고객층으로 떠오른 2030세대를 겨냥한 것이다. 내추럴·비건 와인이란 화학비료나 살충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포도를 사용하거나, 숙성 과정

중 동물성 화학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와인을 선호하는 추세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명절문화가 간소화됨에 따라 작은 분량으로 소포장된 정육 및 수산물 선물세트도 늘리는 추세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설 명절에 처음 선보였던 200g 단위 '소포장 한우 선물세트'가 조기 완판되자 올해는 품목과 수량을 늘린 총 12개 품목, 1만 4000세트를 준비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손질된 가자미·굴비·갈치 등을 150g씩 개별 포장한 '헬로 피시 세트' 등 소포장 상품 물량을 지난해 추석보다 30%가량 늘렸다. 해당 선물세트들은 혼밥족, 혼설족들이 에어프라이어 등을 이용해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선물세트의 꽃 '한우'부터 '와인'까지 총집합

이마트

행사카드 적용시 최대 40% 할인 혜택

2020년 경자년 설을 앞두고 이마트가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이마트 점포에서 본격적인 설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한다.

해당 기간동안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인기 선물세트를 행사카드(이마트e/삼성/KB 국민/신한/현대/비씨/NH농협/우리/롯데/IBK 기업/씨티/광주/전북/SC은행이마트카드)로 구매시 최대 40%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구매 금액 대별 최대 50만원 상품권 증정 또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5만원 미만 선물세트로는 '가성비 와인' 선물세트가 대표적이다.

5~10만원대 세트로는 다양한 수산세트가 대표적이며, 10만원 이상 가격대에서는 선물세트의 꽃 '한우'가 제일 인기다.

구이용과 국거리/불고기 각 1kg으로 구성해



피코크 한우 냉장 1호 세트 /이마트

장 활용도가 높은 '피코크 한우 냉장 1호세트'는 행사카드 구매시 10% 할인한 22만5000원에 판매 하한다.

한우 갈비와 국거리/불고기에 양념소스까지 같이 구성된 실속 선물 세트 '한우 혼합 1호'는 카드 할인 10%를 적용해 17만82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전국서 엄선된 프리미엄 세트 선물하세요”

롯데마트

과일 본연의 가치 '맛'에 집중

롯데마트가 과일 본연의 가치인 '맛'에 집중한 '황금당도 천안배, 충주사과' 프리미엄 과일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황금당도 천안배, 충주사과' 혼합세트는 품질과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먼저, 일반적인 선물세트의 크기인 사과 300g 내외, 배 600g내외보다 약 30%가량 큰 크기인 사과 380g내외, 배 800g내외의 대과로만 선별했다.

'황금당도 천안배, 충주사과'는 배 6개와 사과 8입으로 구성했으며, 가격은 15만8000원이다.

이밖에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을 받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산지특심 충주 GAP사과'와 '산지특심 천안 GAP 신고배' 과일세트를 선보인다.

'산지특심'이란 롯데마트가 전국 산지에서 '특심'을 가지고 정성껏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우



수 로컬 상품 생산자를 발굴 및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롯데마트 이성용 과일팀장은 "이번 설에는 과일의 생산량과 품질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일 본연의 가치인 '맛'에 초점을 두고 준비한 황금당도, 산지특심 선물세트로 품격 높은 선물을 전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SNS서 핫한 이색선물... 2030세대 인기예감

현대백화점

전통 식품 현대식으로 재해석

현대백화점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설 선물세트 판매 기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와 협업해 이색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협업에 참여한 브랜드는 '소보꼬', '부엉이 곳간', '살뿔' 등 7개 브랜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들을 겨냥해 이색 명절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며



현대백_고리1919 100주년에디션 /현대백화점그룹

"특히 20~30대 고객들에게 인기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먼저, 전통 식품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전통 고추장의 맛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볶음 고추장 브랜드 '소보꼬'의 '베스트 세트(5만5,000원, 한우·전복·새우볶음 고추장 각 250g)', 첨가물을 뺀 국내산 식재료로 만든 장과 조청으로 유명한 '부엉이 곳간'의 '조청 2종 세트(5만원, 더덕도라지·생강 각 200g)' 등이 대표적이다.

무궁화 꽃·솔잎·백년초·오미자 등 국내산 재료로 만든 '살뿔'의 '우리나라 담금주 키트(6만원, 2구)'도 눈에 띈다. 살뿔은 국내 최초 담금주 키트 브랜드다.

해의 유명 뷰티·생활용품 브랜드와 협업한 선물세트도 마련했다. 대표 선물세트는 이탈리아 명품 치약 브랜드 '마비스'의 기프트 세트, 이탈리아 웨이빙 전문 브랜드 '프로라소'의 웨이빙 세트, 이탈리아 수도원 천연 화장품 '카말돌리'의 수도사 화장품 운구엔품 세트 등이 있다.

/신원선 기자

만원이하부터 10만원이상까지 '폭넓은 가격대'

홈플러스

두 가지 이상 품목 혼합 구성... 실속 ↑

홈플러스는 설을 맞아 1만원 이하부터 10만원 이상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대표상품으로 정육은 명절 수요가 가장 많은 갈비와 제수용 정육으로 구성된 '농협안심한우 정육 갈비혼합 냉동세트'(갈비찜용 0.9kg, 국거리 0.8kg, 불고기 0.8kg, 14만8000원)를 비롯해 'LA식 꽃갈비 냉동세트'(미국산, 1.4kg*2, 10만3200원), '전통양념소불고기 냉동세트'(미국산, 광양식 소불고기 1kg, 인양식 소불고기1kg, 7만원)를 마련했으며, 과일은 100% 비과과 당도선별로 엄선한 '명품명선 나주배 세트'(7~10입, 5만9900원)와 '명품명선 사과 세트'(11~13입, 5만9000원)를 선보인다.

수산에서는 산소포장 특히 기술로 선도를 높인 '건강을 담은 완도전복세트'(7~9마리, 1kg, 9만9000원), '바다속그대로 완도전복세트'(10~13마리, 1kg, 4만9900원)를 시중 대비 25% 저렴하게



마련했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식에선 '잣품은 고급견과세트'(잣 25g*12, 땅콩 25g*12, 대추칩 10g*12, 마카다미아 25g*12, 호두 20g*12, 6만9900원)를 5000세트 한정으로 백화점 동일 구성 상품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두 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 구성해 실속을 높인 세트도 눈길을 끈다. '멀치 견과 혼합세트'(볶음용 120g, 볶음조림용 110g, 아몬드 310g, 호두 210g, 국내산 보리새우 50g, 3만5900원)는 최근 높은 시세를 형성 중인 멀치와 건강에 좋은 견과류를 함께 구성해 가성비를 높였다.

/신원선 기자



“설 선물세트에 ‘스팸’이 빠지면 섭하죠”

CJ제일제당

2~3만원대 합리적인 혼합세트

CJ제일제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300여종의 선물 세트를 출시했다. 명절 최고 인기 품목인 ‘스팸’을 중심으로 실용적이면서 실속 있는 다양한 구성을 기획했다. 특히 2~3만원대의 합리적인 혼합세트와 건강식품 선물세트 비중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CJ제일제당은 선물세트 포장재의 부피



는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여 ‘친환경 포장’ 트렌드를 이어갈 계획이다.

캔햄 카테고리에서 15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스팸으로 구성된 스팸 선물 세트는 명절마다 성장을 지속하며 가공식품 대표 선물세트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매년 CJ제일제당 전체 선물세트 판매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 선물세트 ‘스팸 8호 시리즈’와 스팸과 백설 고급유로 구성된 ‘스팸복합1호’가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품만을 구성한 특선세트는 ‘최고의 선택’, ‘특별한 선택’으로 나눠 합리적인 가격대에 알찬 구성으로 선물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선세트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스팸, 고급유 등을 기본으로, 백설 올리고당, 백설 허브맛솔트 등 받는 입장에서 쓰임새가 다양한 제품들로 채워져 있으며, 작년 추석, 전년 동기 대비 인기제품 4종 이상을 함께 구성한 복합세트 매출이 2배 이상 높아짐에 따라 총 82종의 다양한 구성을 선보였다. /박인용 기자

“석류농축액으로 간편하게 건강챙기세요”

KGC인삼공사

검사 통해 엄선한 원료만 사용

2020년 설 연휴는 예년보다 짧다. 명절 끝자락이 되면 어김없이 정신적, 육체적 증상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짧은 연휴로 피로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명절 증후군’을 조기 극복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명절 이후까지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굿베이스 홍삼담은 석류스틱’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관장 6년근 홍삼과 석류과즙농축액을 함께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스틱형 제품이다.

‘석류’는 ‘엘라그산’, ‘폴리페놀’, ‘코엔자임Q10’, ‘안토시아닌’ 함유하고 있어 여성을 위한 특별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굿베이스 홍삼담은 석류스틱’은 우리나라 건강식품을 대표하는 ‘정관장’의 약 290가지가 넘는 성분 안전성 검사 프로세스를 통해 엄선한 원료만을 사용해 신뢰성을 더한다. /박인용 기자



홍삼담은 석류스틱

최근 ‘홍삼담은 석류스틱’은 중국인 고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KGC인삼공사에 의하면 여성 건강을 위한 소재로 ‘석류’를 많이 찾는 중국인 고객의 욕구와 정관장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합쳐져 매출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한편 KGC인삼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대표 인기제품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20년 설, 20살의 마음’을 선물하세요’ 프로모션 행사를 오는 29일까지 전국 정관장 매장에서 진행한다. /박인용 기자

100% 국산 쌀로 만든 대표 차례주 ‘백화수복’

롯데칠성

저온 발효공법으로 깔끔한 맛 살려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라’는 뜻을 지닌 ‘백화수복’은 76년 전통의 대표 차례주로받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이 담긴 제품이다.

‘백화수복’은 1945년 출시된 이후 오늘날까지 76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단일 브랜드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청주 생산량을 자랑하는 군산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100% 국산 쌀로 만들고 쌀의 외피를 30% 정도 도정해 사용하며, 저온 발효공법과 숙성방법으로 청주 특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며, 알코올 도수는 13도이다. 우리 민족의 정성된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라벨은 동양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고 라벨과 병목 캡셀(병뚜껑을 감싸고 있는 비닐 포장재)도 금색을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우리나라 대표 차례주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특유의 깊은 향과 맛으로 차게 마셔도 좋고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좋아 조상님들에게 올리는 제례용 또는 명절 선물용으로



로 안성맞춤이다. 차례 또는 선물용 ‘백화수복’은 제품 용량이 700ml, 1L, 1.8L 등 3가지 제품으로 구성돼 소비자 편의나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 가격은 일반 소매점 기준으로 700ml 4900원, 1L 7100원, 1.8L 1만1000원이다. /박인용 기자

옛 호프집의 추억 ‘OB라거 랄라베어’

오비맥주

100% 맥아, 독일산 호프만 사용

오비맥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중순부터 전국 대형마트를 통해 ‘OB라거 랄라베어’ 전용잔 패키지를 한정 출시한다.

이번 패키지는 오비라거 355ml 12캔과 전용잔 2개, ‘랄라베어’ 스티커 1매로 구성된다. 전용잔에는 OB라거의 상징인 곰 캐릭터 ‘랄라베어’와 복고풍 글씨가 새겨져 있어 옛 호프집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스페셜 패키지는 4만 박스 한정판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전국의 대형마트를 통해 기존 12캔 패키지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돌아온 OB라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이 뜨겁다. 특히 전용잔 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스페셜 패키지 출시를 기획했다”며 “오비맥주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



OB라거 랄라베어

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새롭게 돌아온 OB라거는 100% 맥아와 독일산 호프만을 사용해 ‘오리지널 울 몰트’ 맥주의 깊고 클래식한 맛을 구현하면서도 알코올 도수를 기존 ‘프리미어 OB’ 제품(5.2도) 대비 4.6도로 낮추고 쓴 맛을 줄여 부드러운 음용감이 특징이다. 특히 친근한 시그니처 곰 캐릭터 ‘랄라베어’와 복고풍 글씨체의 제품 디자인은 뉴트로 디자인 대세를 이끌며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완판행렬... 프리미엄 소주 ‘일품진로 1924’

하이트진로

음식 궁합과 음용법 담은 리플렛 제공

하이트진로가 설 명절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프리미엄 증류소주 ‘일품진로 1924’ 선물세트를 한정 판매한다.

일품진로 1924 선물세트는 가성비, 소화행(하지만 확실한 행복)트렌드 등에 따라 프리미엄 소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출시 때마다 완판을 기록하는 등 명절대표선물로 인기가 높다.

선물세트는 일품진로 1924(375ml) 2병과 전용



일품진로1924

잔(스트레이트 잔 2개, 언더락스 잔 2개) 4개 구성이다. 프리미엄 소주의 격에 맞게 실크 원단과 고급스러운 질감의 박스로 포장해 선물 가치를 높였다. 또한 일품진로 1924를 더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 궁합과 음용법을 담은 리플렛을 함께 제공한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일품진로 1924선물세트는 가심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층은 물론 프리미엄 소주를 즐기는 중장년층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대표 명절 선물이다”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좋은 날, 고마운 마음도 전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품진로1924는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가장 대중적인 기호의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로, 2014년 창립 90년 기념주로 출시된 ‘진로1924’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랑과 재출시 요구에 따라 약 4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출시됐다. 특히 ‘일품진로 1924’ 세계 유명 주류평의회인 ‘2019 몽드셀렉션’에 참석해 증류주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박인용 기자

치아 건강 걱정된다면 ‘자일리톨껌’

롯데제과

우리나라 자일리톨껌 시장의 85% 차지

새해가 되면 복을 기원하며 시작한다. 복 중에서도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 치아 건강을 빼놓을 수 없다. 치아 건강을 기원하며 자일리톨껌을 선물로 한다면 받는 사람은 색다른 느낌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자일리톨껌은 우리나라 자일리톨껌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롯데자일리톨껌에는 자일리톨과 함께 치아 재석회화 효능이 있는 후노란(해조 추출물)과 CPP(카제인 포스포 펩타이드; 우유 단백질에서 분해), 인산칼슘 등이 들어 있어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준다. 롯데자일리톨껌은 지난해 약 11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도 1000억원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자일리톨껌이 인기를 얻는 이유로 국민치아건강에 노력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빼놓을 수 없

다. 롯데제과는 치아 건강이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관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지난 수년간 국민 치아건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제품에 대한 품질 제고 노력이 출시 이후 계속 이루어져 왔다. 더불어 자일리톨껌을 컨셉트로 한 사회공헌활동도 인지도 제고에 한 몫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펼친 각종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다.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치과 진료사업,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구강관리 교육, 기타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협력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왔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졸깃한 식감과 육즙 ‘그릭슈바인’

SPC삼립

33호 박순애 명인과 기술제휴한 한과

SPC삼립이 설을 맞아 ‘그릭슈바인 선물세트’ 7종과 ‘빛은 설 선물세트’ 16종을 출시한다.

‘그릭슈바인 선물세트’는 그릭슈바인 캔햄으로 구성된 햄 선물세트부터 포도씨유, 카놀라유, 올리브오일, 천일염, 통후추, 참치 등과 함께 구성된 복합 선물세트까지 총 7종이며 쿠팡 등 소셜 마켓 및 SPC GFS의 온라인 쇼핑몰 ‘하이카페몰’에서 구입 가능하다. 구성된 그릭슈바인 캔햄은 독일 육가공 전문기업인 슈페어(Schaefer)와 기술 제휴를 통해 적당한 기름기를 머금은 돼지 앞다리살과 졸깃한 식감을 맛볼 수 있는 뒷다리살을 최적의 비율로 혼합해 쫄득한 식감과 육즙이 살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빛은 설 선물세트’는 ‘장수기원 감사세트’, ‘전통한과세트’ 등 1만 원대부터 9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했다. ‘장수기원 감사세트’는 빛은의 인기제품인 찰떡, 만주, 복(福)무늬를 새긴

절편 등을 다양하게 조합한 선물세트다. ‘전통한과세트’는 식품명인 33호 박순애 명인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만든 한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된 한과는 담양 순수 조청을 사용해 너무 달지 않으면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단호박, 백년초 등 천연색소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색감을 살렸다.

이 밖에도 우리쌀로 만들어 더욱 졸깃한 ‘순 우리쌀 떡국떡’과 간편하게 상차림을 준비할 수 있는 찹쌀산자, 제수편 등도 판매한다.

/박인용 기자



빛은 선물세트

공정무역 인증 커피 ‘콜롬비아 카우카’

엔제리너스

지역 본연의 맛과 풍미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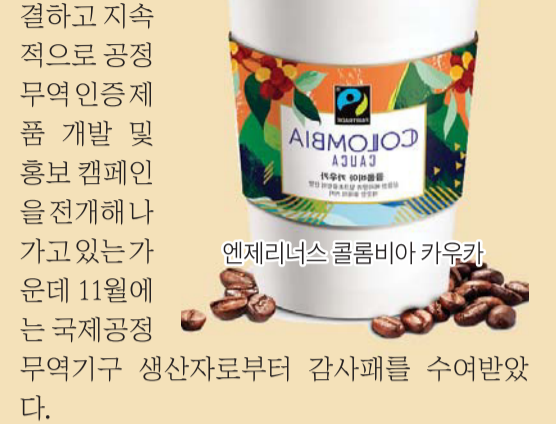
엔제리너스가 100% 국제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싱글 오리진 커피 ‘콜롬비아 카우카’를 출시했다.

‘싱글 오리진 커피’는 다른 원두를 섞지 않고 단일 원산지에서 자란 커피콩을 사용해 지역 본연의 맛과 풍미에 집중한 커피다. 이번 ‘콜롬비아 카우카’ 원두는 100% 국제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싱글 오리진 커피로 베리 향과 밀크 초콜릿의 단맛, 깨끗한 후미가 특징이다. 한편 엔제리너스는 지난해 5월 커피 프랜차이즈 최초로 100% 국제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멕시코 산 크리스토폴’을 출시해 고객의 호응을 얻었다.

‘콜롬비아 카우카’는 엔제리너스 바리스타가 직접 제조하는 커피로 아메리카노와 아메리치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총 4종 제품에 한해 운영한다.

엔제리너스는 2019년 4월 국제 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와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공정무역인증 제품 개발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11월에는 국제공정무역기구 생산자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엔제리너스 콜롬비아 카우카

공정무역이란 불공정한 무역 체계로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농민과 노동자에게 국제시세보다 높은 정당한 가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지급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지역사회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자 글로벌 소비운동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실용적인 선물은 역시 ‘금강제화 상품권’

금강제화

연령대, 취향 걱정없는 인기 선물

금강제화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선물을 제안한다.



금강제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실용적이고 편리한 선물을 고려하면 역시 상품권이 베스트다.

연령대나 취향에 따른 걱정 없이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는 금강상품권

은 매년 명절이면 어김없이 손 꼽히는 인기 선물이다.

금강상품권은 구두뿐만 아니라 핸드백, 지갑, 벨트, 액세서리 및 골프웨어, 아웃도어웨어, 신사복 등 의류제품까지 다양한 패션 브랜드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에는 금강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와 제품이 꾸준히 늘고 있어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강상품권은 전국 금강제화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캐주얼 대표 브랜드 랜드로바는 미니멀한 스타일의 안정적인 착화감을 자랑하는 랜드로바 앵클 부츠를 제안한다.

발목 위에 살짝 올라오는 길이로 와이드팬츠, 스트레이트 팬츠 등에 쉽게 코디 가능하며, 플렉서블한 창과 폭신한 인soles을 사용하여 가볍고 부드러운 착화감이 특징이다.

털안감을 사용하여 보온성을 높여 연령대 제한 없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신원선 기자

합리적 가격의 푸짐한 선물세트로 ‘제격’

LG생활건강

빈틈없는 토털 안티에이징케어

LG생활건강이 설을 맞아 특별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먼저, 스킨 릴리프 뷰티 브랜드 ‘비온드’는 ‘딥모이스처 미라클 세트’를 마련했다.

매력적인 머스크 향기와 라이스밀크™, 꿀, 올리브 추출물의 깊은 보습력으로 바디부터 핸드까지 윤기 있고 촉촉한 피부로 가꿔주는 것이 특징이다.

한방 화장품 브랜드 ‘예화담’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예화담 환생 & 보윤 3종 프리미엄 세트’를 선보였다.

‘환생 & 보윤 3종 프리미엄 세트’는 영지, 상황버섯, 산양삼 등 피부를 위한 12가지 한방 원료의 기운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환생 & 라인만의 포물라, 천혜명의단에 깊고 진한 영양감을 보하는 보윤단을 더해 빈틈없는 토털 안티에이징 케어를 선사한다.



쓰임가득 세트

/LG생활건강

합리적인 가격으로 풍성함을 전달하고 싶은 소비자라면 ‘쓰임가득 16호’ 선물세트를 추천한다.

자연에 가까운 오가니스트로즈마리 샴푸/컨디셔너를 비롯해 대표적인 치약 브랜드 페리오 및 리치 치약이 구성되어 있다.

바디케어 제품인 온더바디 바디워시/비누로 활용도를 높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장까지 살아있네... 19종 유산균 ‘프리락토’

종근당

유해균 생성 억제 효과 강화

종근당의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프리락토 4종’은 소비자가 자신에게 알맞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균주와 제형을 다양화한 맞춤형 제품이다.

‘프리락토 프리미엄 장용캡슐’과 ‘프리락토 베베’는 장내에 다양한 유산균이 보급되도록 국내 최다인 19종의 유산균을 함유한 제품이다. 두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넣은 신바이오틱스 제품으로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D를 복합 처방한 것이 특징이다.

프리락토 프리미엄 장용캡슐은 장까지 살아갈 수 있는 장용성 캡슐을 적용하여 위산 및 담즙산에 취약한 프로바이오틱스의 단점을 보완했다. 프리락토 베베는 맛있게 씹어먹을 수 있는 츄어블정



프리락토

타입의 제형으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복용할 수 있다.

분말형태의 ‘프리락토’와 ‘프리락토 키즈’는 소비자의 연령대에 따라 적합한 유산균을 이상적으로 배합한 제품이다. 프리락토는 성인용 제품으로 면역과 항균물질 형성, 장내 세균구성 정상화, 유해균 생성 억제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락토바실러스균을 강화했다. 프리락토 키즈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제품으로 질병 예방과 면역체계 형성을 위해 모유에 함유된 비피더스균 4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

항산화 성분 보강... 원조 국민 영양제

유한양행

엄격한 제조과정과 품질관리로 생산

유한양행의 빼꼼씨는 첫 출시 이후 지난 50여년간 새로운 제품으로 꾸준히 진화하며, 원조 국민 영양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2년 기존 빼꼼씨에 비타민E와 셀레늄 등 항산화 성분을 보강해 리뉴얼을 실시했다. 여성을 위한 ‘빼꼼씨 이브’는 비타민B와 C에 철분,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과 대표 항산화물질인 코엔자임Q10, 비타민E 등을 더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한양행은 2017년 4월 1일 빼꼼씨 본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비타민B군 (B1, B2, B6)를 흡수율이 높은 활성비타민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빼꼼씨 액티브’를 출시했다. 지난해에는 신제품 ‘빼꼼씨 파워’를 선보이기도 했다. 빼꼼씨 파워정은 비타민B군 3종(B1, B2, B6)을 생체이용률이 높은



빼꼼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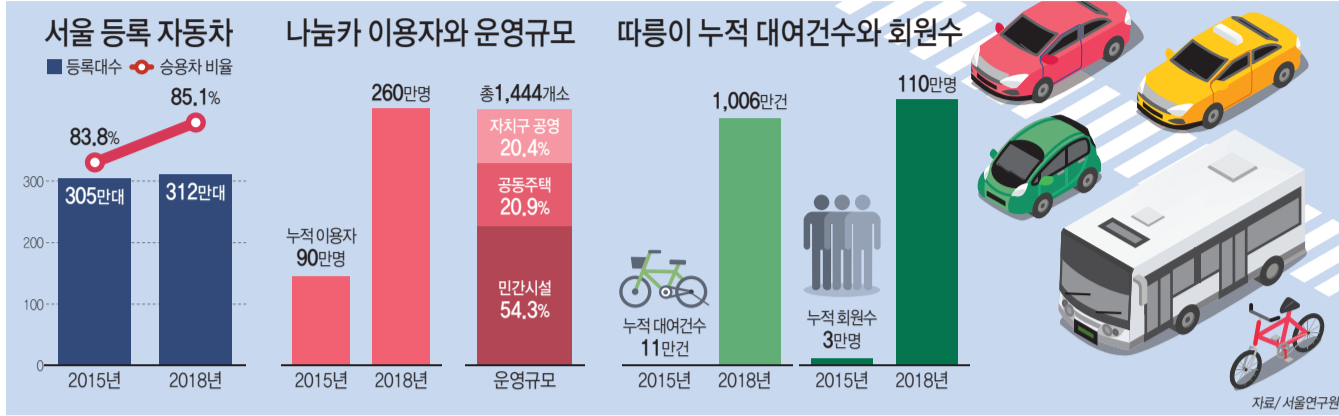
활성비타민으로 업그레이드 한 제품. 비타민D 함유로 충분한 햇빛을 쬐지 못하는 현대인의 뼈 건강 및 피로 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E의 함량을 증가시켜 혈액순환 개선과 함께 항산화 효과를 높였다.

유한양행은 “다양한 비타민 제품 속에서도 빼꼼씨는 엄격한 제조과정과 품질관리로 생산되며, 식약처로부터 명확한 효능 효과를 허가 받은 의약품 ‘비타민’이라 하며 ‘빼꼼씨 브랜드명 자체가 비타민B, C 복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인의 건강을 위한 기본에 충실한 비타민 영양제’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소유 대신 공유... 나눔카 3배, 따릉이 32배 '이용자 급증'

서울시 교통수단변화
 서울연구원 자동차 등록건 감소세
 자전거 도로 3년 동안 17.6% 증가
 자전거길 도로변 70%... 안전지적



서울에 등록된 차량이 최근 3년 새 약 3% 증가한 반면 나눔카 이용자는 2.9배, 따릉이 회원수는 32배 폭증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5년 305만6588대에서 2018년 312만4651대로 6만8063대 증가했다. 지난 2012~2015년 8만7404대가 증가한 것과 비교해 약 2만대 줄었다.

차량 소유는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공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은 많아졌다. 공유자동차인 나눔카 사용자는

2015년 89만7662명에서 2018년 259만8143명으로 2.89배 늘었다.

운영 규모별(2018년 기준)로 보면 민간시설이 784개소(5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주택 302개소(20.9%), 자치구 공영 294개소(20.4%), 서울시 공영 64개소(4.4%) 순이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수는 2015년 3만4000명에서 2018년 109만3000명으로 3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따릉이 대여 건수는 11만4000건에서 1006만2000

건으로 88배 늘었다.

자전거 교통 인프라도 확충됐다. 자전거 도로는 지난 3년 동안 17.6% 증가했다. 서울의 자전거 도로 길이는 2015년 779km에서 2018년 916km로 137km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도로변이 639km로 전체의 69.8%에 달했다. 하천변은 263.7km(28.8%), 교량은 7.3km(0.8%), 공원이 6km(0.7%)로 뒤를 이었다.

자전거 길 대부분이 도로변에 깔려 있다 보니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5~2017년 서울 시내에서는 총 1만555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1만1190명이 다치고 81명이 숨졌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7984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자전거 대 사람 사고' 1358건,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1082건 순이었

다. 전체 사망자의 81.5%(66명)는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였다.

일각에서는 도로에 더부살이하는 자전거 도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는 2018년 4월 오직 자전거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개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전거 길을 분리대 없이 도로 끝에 색깔로만 표시해놨다. 택배 차량이나 택시 등 차들이 침범,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았다.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시는 "자체 조사한 종로 자전거 도로 이용자 현황은 개통 직후인 2018년 4월 일주일간 2560명에서 개통 후 1년 시점인 작년 4월 일주일간 4867명으로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자전거 통행 안전확보와 주변 상인 주차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설 명절을 앞둔 최고의선물 상주곶감.

임금님께 진상된 상주곶감... 설 선물로 '딱'

일반 감에 비해 당도 4배 이상
 곶감 철이 돌아왔다.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용과 차례상에 올릴 차례용품으로 내놓을 수 없는 것이 곶감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주는 대표적인 곶감 주산지다. 생산량이 전국 물량의 60%에 육박할 정도다. 맛과 품질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상주 곶감의 우수성은 역사적으로 확인된다. 조선 세종실록, 예종실록에 주요 공물로 상주 곶감을 임금에게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다.

상주 곶감은 원료 감부터 타 지역산

과 차별화된다. 산림청 품종등록이 되어 있는 상주동시가 원재료다.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 적당한 과육밀도, 껍기 좋은 모양, 매달기 좋은 감꼭지 등이 있어야 하는데 상주동시는 이런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

상주동시는 일반 감에 비해 당도는 4배, 비타민A는 7배, 비타민C는 1.5배가 많다. 원료 감이 우수하다 보니 곶감의 효능도 뛰어나다. 상주 곶감에는 100g 당 에너지 216kcal, 탄수화물 중 당질 45g, 섬유 3.0g, 비타민A 7,483IU, 비타민C 45mg 등이 함유되어 있다

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2032년 올림픽 위해 군사훈련 잠정 중단해야”

(한·미·북)

박원순 '평화 향한 서울의 전진' 연설 대북 제재완화·방위비 조정 주장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에서 미국 정부에 유화적 대북 제재완화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14일 박원순 시장이 외교·안보 분야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초청으로 좌담회에 참석해 '평화를 향한 서울의 전진'을 주제로 연설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한·미·북의 잠정적 군사훈련 중단, 대북 제재 완화, 방위비 부담금의 합리적 조정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해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북한과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13일 오후 2시 30분(현지 시간) 외교·안보 분야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좌담회에서 '평화를 향한 서울의 전진'을 주제로 연설했다. /서울시

대북 인도적 지원 요청을 받고 100만달러를 공여했는데 WFP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니 미국의 대북 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차 제재)을 우려하는 국내 은행들이 송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적 지원, 스포츠 교류, 역사(공동)발굴 등 어느 것 하나 발목 잡히지 않는 것이 없다"며 "미국 정부가 제재의 한계 속에 놓인 민간 교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방위비 부담금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 5배 인상과 같은 과도한 요구는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요인이다"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북한의 군사 행동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도 부합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유령공간서 드라마·뮤비 무대로... 다채롭게 변하는 '서울 지하철'

2019년 지하철역 내 촬영 336건
 녹사평역 공공예술정원 개장 인기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왜 우리는 갈라서야 하나~'

지난해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유산슬이 합정역을 소재로 다룬 노래를 발표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루 75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이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 지하철역 내부에서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등 각종 촬영이 총 336건 이뤄졌다.

촬영장소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6

호선 녹사평역(21건)이었다. 왕십리역(12건), 신설동역(10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녹사평역에 공공예술정원이 개장하면서 촬영 장소로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설동역에는 드라마 '아테네: 전쟁의 여신'과 EXO, TWICE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유명한 '유령 승강장'이 있다.

이러한 유령 공간은 2·6호선 신당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 7호선 신풍역·논현역에도 있다. 공사는 신당역과 신풍역을 신설동역처럼 다시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



신당역 유령 공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면 공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영리 영상물 촬영은 무료지만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리 영상물은 촬영 수수료를 내야 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7:46 | 해질 17:37

1월 15일 (수)
 음력 : 12월 21일

수도권 날씨: -5 ~ 2°C

연천	-11/2
동두천	-9/3
가평	-9/3
파주	-6/3
서울	-5/2
양평	-6/3
인천	-4/1
수원	-3/3
용인	-3/3
평택	-7/3
백령도	-2/2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CES2020]
“5G-AI가 대세
이동사·차업계
연결 화두”
04

Life

[사랑을 담은 설 선물]
경자년 설
선물 키워드는
#밀레니얼 #프리미엄
L4·L5·L6



“나다음’ 담은 셀피로 디지털 자화상 찍어보세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자화상 스튜디오 조경민 대표

사진사의 지시에 따라 카메라 앞에서 위치를 잡은 뒤 고개를 좌우로 번갈아 돌리며 ‘얼짱각도’를 쥔다. 포즈를 취하고 카메라를 향해 리모콘 버튼을 누르면 약 2초 후 촬영이 시작된다. 20분간 100컷의 촬영을 마치면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조경민 자화상 스튜디오 대표(37)만의 ‘셀피 프로필’ 촬영 방식이다. 셀피는 ‘자기촬영사진’의 줄임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인 셀카(셀프 카메라)와 같은 개념이다. 이 말은 지난 2013년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다.

◆ ‘셀피 프로필’로 자화상 연출

셀피 프로필의 ‘선구자’인 조경민 대표는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근무한 경력이다. 그는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도중에 사표를 던졌다. 지난 2014년 친구의 사진관에서 근무하며 3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지난 2016년 1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리단길에 스튜디오 ‘자화상’을 열었다.

10일 문을 두드린 자화상의 내부 벽면은 ‘셀피 프로필’을 촬영한 손님 사진들로 장식됐다. 조 대표에 따르면 주로 20~30대 여성 고객이 가장 많다. 연인 혹은 친구끼리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 자화상을 찾고 있다. 자화상을 다녀간 사진 속 인물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조 대표는 “자연스러움을 지향하고 있



조경민 자화상 스튜디오 대표.

/정연우 기자

스튜디오 공간 빌려주고 자율촬영 편안한 분위기·자연스러움 추구 100장 사진 속 평소모습 담길 바라

이미지 메이킹 관심, 특징 찾아 찍고파 프로게이머 촬영 등 외부촬영 넓힐 것

다”라며 “그림처럼 인위적인 보정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내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편안한 분위기에서 스스로 촬영하도록 돕는 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담기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객의 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는 어떤 촬영 방식이 효과적일지 연구했다. 고민 끝에 손님이 스튜디오에 와서 자유롭게 셀피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셀피 프로필 촬영이 시작되면 사진사는 스튜디오 밖으로 퇴장해 고객이 찍고 있는 사진들을 점검한다. 문득 사진사의 역할이 궁금했다. 조 대표는 “내 역할은 제한적이다. 고객이 편하게 촬영하고 만족스러운 사진을 고를 수 있도록 팁을 주고 ‘스튜디오’라는 공간을 20분간 빌려 줄 뿐이

다. 사진촬영은 경험을 담은 일이다. 고객이 사진 100장을 찍으며 자신의 평소 모습을 사진으로 담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님 혼자 방안에 있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한 번 촬영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 조 대표는 “셀피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고객과 촬영 콘셉트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한 뒤 촬영을 하고 인화작업을 하면 한 사람당 대략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다.

◆ 외부촬영 및 강연으로 활동 폭 넓힐 것

고객의 자화상을 사진에 담은 그의 일상엔 어떤가. 조 대표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에 있는 집에서 서울 마포의 사진관으로 출근하려면 새벽 5~6시에 일어나야 한다. ‘조 대표의 공간’인 자화상에 도착하면 예약손님의 일정을 살피고 10~15분 정도 준비 작업을 한다. 하루의 마무리는 촬영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오후 7시에 한다.

그는 “하루에 손님이 많으면 5명, 일주일 40명 정도 오는데 개업했을 때 비해 손님이 많아 졌다”라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셀피’ 사진관으로는 서울에서 유일했는데 지금은 많이 생겨 시너지를 받고 있

다”고 전했다.

가장 나다운 모습을 찍는 촬영방식, 기발한 발상이다. 그는 “사진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스튜디오가 고객들에게 독특한 공간이 되길 원한다”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게 앞에 전시된 사진들을 구경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다. ‘자화상에 사진 찍으러 가자’는 말 보다 ‘자화상에 구경가자’고 말하는 손님이 많으면 좋겠다”고 자화상만의 경영철학을 전달했다.

문득 조경민 대표의 2020년 목표가 궁금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모델 프로필사진을 포함해 외부촬영을 많이 하고 있다. 스튜디오 안에서 사진을 잘 찍기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연도 했다.

조 대표는 “이미지 메이킹에 관심이 많다”며 “사진 찍으러 오는 분들의 특징을 살려 그 스타일에 맞게 찍어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지난해부터 프로 게이머 프로필 사진을 찍고 있다”며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지만 올해는 강의와 함께 외부 촬영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싶다”고 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